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그 뜻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서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창세기 2장 23-24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5월 12일 (토) 제 168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계절의 여왕 5월을 가정의 달로!

가정의 소중함 알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시기로 만들어야

5월은 축복의 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5월 전체를 통해 다가온다. 계절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다. 무엇보다 가정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으로 주셨고, 가정 안에 부모와 어린이와 청년을 주셨다. 우리는 건강과 재물과 일과 사랑 등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나누고 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가정을 터전 삼아 주어지는 것이다. 5월의 목회를 이 복을 깨닫게 하고 만민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

가정을 주제로 사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일 것이다. 어린 이주일, 어버이주일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절기 설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매년 본문이 반복되거나 주제가 반복되기 쉽다. 교인들도 설교자가 할 말을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기 쉽다.

단순한 자녀 교육이나 효도 설교만으로는 자칫 인생 강론처럼 들리기 쉽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의 관계와 연결시켜 이해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머무셨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도 언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정이 무너지는 해체의 시대를 사는 교인들에게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축복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달이다.

일반적으로 '가정'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품어 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연상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떠올리기만 해도 상처와 아픔이 되는 곳, 차라리 잊고 싶은 이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정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에 따라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므로, 인간은 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참 인간으로 완성돼 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애뜻해야 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어 황량한 삶을 이어 가며 상처투성이 가정에 실랑이와 좌절을 느끼고 있는가? 차라리 부모가 없었으면 더 나를 뻥뻥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바쁜 형제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만들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

는가? 수십 년간 온갖 정성을 다해 양육한 자녀들이 다 컸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가?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등등의 괴로운 질문을 안고 고민해온 교인들을 위한 관계 치유 또는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가슴 시리는 아픔이 있기에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희망이 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기초가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가족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운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가족을 향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쳐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3면으로 계속)

"내게 맞는 영성만 있으면 된다!"

처치리더스.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미국인들' (SBNR)에 대한 바나 설문 결과 해석

코미디언 피트 홀즈(Pete Holmes)는 교회에서 주로 들을 수 있는 말들을 자신의 개그에 많이 사용한다. 그는 종종 팟캐스트(podcast)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때 주로 쓰는데, 이는 자서전적인 HBO 드라마 "크라싱(Crashing)"의 주제다. 또한 이를 뛰어넘어 종교로부터 받게 되는 영적인 압박을 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한다.

피트 홀즈는 2017년 4월, 바나(Barna) 설문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ality But Not Religious, SBNR)"이들로 자신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룹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예다.

이러한 SBNR 그룹에 속한 일부는 여전히 종교와의 소속을 주장하기도 한다(피트 홀즈가 여전히 기독교와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SBNR에 속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관점으로 옮겨갔다. 그 중 3분의 1이 하나님은 보편적인 양심이 라고 믿고, 50%는 다신론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영적인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다. 바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것도 아마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타난다. 이 부류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의 자유에 가치를 둔다"(What Does the 'Spiritual but Not Religious' Crowd Actually Believe?).

삶의 영적 부분을 향해 본질이 기울어지고 있는 교회 밖 사람과 달라

- 1그룹: 영적 생활은 중요하지만 종교적 믿음은 삶에서 중요하지 않아
- 2그룹: 영적 행위 실용성 강조...요가, 명상, 침묵·고독, 자연과 보내기

최근 팟캐스트에서, 피트 홀즈는 자신은 여전히 기독교의 언어를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더 넓은 형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다 속하게 되는 더 큰 보편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주제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다. SBNR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같다고 믿고, 이중 절반은 형식적인 종교가 해롭다고 믿는다. 이 그룹에 속하는 많은 이들이 종교는 때로 진리를 품고 있지만 진리

를 역이용하거나 왜곡한 형태로 나타나는 '인조적인 상자'로 본다. 이들에게 종교는 진짜 영적 경험을 만들어 낼 때만 가치가 있지만, 이런 종류의 경험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그래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들을 크게 두 집단으로 보았다. 첫 번째 집단은 영적 생활은 중요하다고 믿지만, 종교적인 믿음은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부(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선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c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qospellmail@hotmail.com

시론 은희근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본/사/방/문 양진석 목사 16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2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1st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2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18년 5월 22일(화) - 5월 25일(금) (3박 4일)
- 총회장소: Hilton Long Island/Huntington (www.hiltonlongisland.com) 598 Broad Hollow Rd. Melville, NY 11747 (Tel. 631-845-1000)
- 숙식비: 총회 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ollar)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5일)	2차(3월 15일)	3차(4월 15일)
2인1실(1인당)	\$ 499	\$ 479	\$ 519
1인1실	\$ 759	\$ 799	\$ 840
부부	\$ 859	\$ 919	\$ 999
호텔공로 목사 (2인1실)	\$ 299	\$ 259	\$ 299
(부부)	\$ 639	\$ 679	\$ 719

-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견학하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여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3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총회 전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체류하실 분들은 미리 총회 준비 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KAPC
- 주소: Elder, Paul Lee (이성주 장로)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Y (뉴욕센트럴교회)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Tel. 516-387-9940 Email: kapc42nd@gmail.com

5. 교통안내: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도착공항과 시간, 항공편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뉴욕 John F. Kennedy (JFK) 공항과 LaGuardia (LGA) 공항으로 오셔야 가능합니다. 뉴저지 Newark Liberty Airport (EWR)는 픽업이 불가능합니다.

6. 접수: 첫째 날 (5월 22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이며 저녁 식사는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기회 때에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 3차 등록 마감일(4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호텔 숙박은 준비 위원회에서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에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7. 기타: (1) 영어나총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처 호텔: 김원주 집사 (646-249-9191; kapc42nd@gmail.com) 관광: 임홍섭 목사 (714-917-7205; amenchrist@gmail.com) 총무: 조혁남 목사 (516-282-6772; chotoknam@gmail.com)

주후 2017년 11월 1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 제41회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강진우 목사 서기 문석호 목사



시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반갑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노래를 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부분 가장 먼저 특 튀어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전 우리들도 그 노래를 기억합니다. 4월 27일(금, 한국시간)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서로가 만나니 그 누구도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도 “반갑습니다”로 답례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만나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만나야 서로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를 알게 되고, 만나야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상호 모색하게 되고, 만나야 무엇을 양보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를, 만나야 나만 아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만남은 영리적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런 의미로 남-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그 어떤 위험과 함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계속 가야만 할 길입니다.

불과 몇개월 전만해도 미국과 북한은 막판 절벽까지 서로를 몰아붙여, 교포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제 2의 한국 전쟁 위기로 인해 고국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로 볼 때 전쟁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 같은 보통 일반인들도 얼마전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된 곳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제한 공습에서 보여준 미국과 서방의 능력은, 한반도에서도 이런 제한공습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과격적인 중국 방문과 시진핑과의 회담,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제안 그리고 각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매스컴들을 통해 접하면서,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 ‘천지개벽, 감개무량’일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북미회담이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져 한반도 휴전 협정이 종전 협정으로 바뀌고 이어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고 등등으로 이어져, 이런 변화된 상황들이 진정한 한반도, 한민족 평화통일의 길과 연결되어 그 길을 열어 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남-북 통일 이전에 남-남 통일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아배 하는 시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처럼 따르는 며느리가 밥상 앞에서 남-북 얘기만 나오면, 처음에는 서로가 자제하며 의견을 나누다가도 결국에는 얼굴을 붉히고 돌아앉고 맙니다. 지금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런 상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정상 회담 전후로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여타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는가”라는 말이 있듯이, 부작용들이 무서워 역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을 못가고 안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예견한 일은 일대로, 예견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은 그 일대로 대처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대처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두란노)으로 매일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번 달 계속 이시야서가 이어집니다. 이시야서를 묵상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역사와 공동체와 개인을 향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들을 역사 속에서, 공동체의 현장 속에서, 개인의 삶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이 가슴 절절히 와 닿습니다. 모세를 들어 애굽에서 히브리를 출애굽 시키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이 정진 차리게 회초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한껏 교만해져 제 정진 못 차리는 바벨론을 향하여 페르시아를 들어 응징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8.15 해방은 당시 조선이 일본보다 강해서가 아니요(독립 투쟁하신 선조들을 격하시키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해방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일본이 조선보다도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반도 한민족을 공활히 여기사 미국과 연합군을 들어 구원하신 사건이듯이,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들어 이리저리 짜 맞추시면서 한반도, 한민족에게 평화 정착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한반도, 한민족에게 평화의 정착으로 Here & Now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을 공활히 여기시옵소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같은 마음의 기도를 드리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pastor.eun@gmail.com

영적 분별력으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를 대하라!

미 기독교 진영,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의 반기독교적 내용들 지적과 함께 가이드 제공

마블 10주년의 클라이맥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가 미국 역대 오프닝 박스오피스 흥행 신기록을 수립한 가운데,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얻고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10주년을 맞이한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으로, 새로운 조합의 어벤져스와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의 무한 대결을 그린 영화다.

지난 달 27일 북미에서 마침내 베일을 벗은 2018년 전 세계 최고의 기대작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향한 전 세계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10년간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수놓은 대표 슈퍼 히어로들의 새로운 조합과, “어벤져스(2012)”부터 출현을 예고해온 사상 최강의 빌런 타노스, 그리고 마블 세계관의 연결고리인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의 행방, 장대하게 펼쳐지는 액션 등 무수한 관람 포인트를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개봉된 지 11일 만에 전 세계에서 1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미국, 한국을 비롯한 54개국에서 역대 최고 흥행 영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지구촌이 이 영화에 들뜬 빠져들었다.

먼저 지구촌 유수 매체들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향한 다채로운 찬사를 살펴보자. “테마파크의 모든 놀이기구를 세 번씩 타는 기분!”(Variety), “액션과 유머가 대폭발하는 어벤져스의 재결합”(Rolling Stone) 등 캐릭터들과 액션의 향연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만의 독특한 유머에 대해 호평했다.

또한 “관객들을 완전히 몰입시키는 마블의 정교하고 놀라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이 영화를 보기가 영 개운하지 않다. 허리우드에서 잘 만든 영화에 따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마블 유니버스”가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되고, 강한 힘만이 전 우주를 지배하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로서 영상이라는 강력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개봉 당일부터 매장에 매진을 벌일 정도로 흥행면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본 사람보다는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비롯한 온 가족이 주말마다 극장마다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분별력이나 주의가 깊지 않으면, 마블의 세계관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돼 영화에서 죽어가는 어벤져스들의 희생에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역대 최강의 파워를 가진 타노스를 물리칠 수 있을가에 몰두하게 된다. 그만큼 영상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파급적인 요소들이 기억에 남게 된다. 그래서 미국내 기독교 진영 안에서의 다양한 비판들을 모았다.

고 싶은 “아이들”이 된다.

또한 “라이프 웨이”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적 변형과 왜곡”을 지적한다. ‘AVENGERS: INFINITY WAR’ PACKS A PUNCH, HITS ON SPIRITUAL THEMES). 타노스는 전도된 구원자로 영화 전체 줄거리를 이끌어간다. 모든 마블 영화를 보면 개인적 희생이라는 주제가 흐른다. 캡틴 아메리카는 도

월드크리스천뉴스-우상숭배 고발, 라이프웨이-영적 변형과 왜곡 지적 포커스온더패밀리-누가 마스터? 어떤 보물을 선택? 생명의 가치는?

운 세계관”(CNN.com), “절정에 이른 마블의 스케일”(Associated Press), “마블은 또 한 번 쟁쟁을 터뜨렸다”(Hollywood Reporter) 등 마블 스튜디오만의 스케일과 이어질 10년을 내다보는 세계관에 대한 감탄을 더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진영의 반응에 귀 기울여 보자.

“월드크리스천뉴스”는 ‘크리스천들이 동 영화를 반드시 보고 즐겨야 하는가?(SHOULD CHRISTIANS WATCH AND ENJOY ‘AVENGERS: INFINITY WAR?’)’라는 보도를 통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담겨있는 반기독교적 요소인 “우상숭배”를 고발한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한마디로 “계속되는 전투”다. 신으로 불리우는 타노스가 은하계 생성 당시, 만들어진 우주 창조자의 힘이 담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폭력을 통해 얻는 과정

에서, 어벤져스들과 싸우는 구 조다. 타노스가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갖게 되면 창조주를 능가하는 힘을 얻게 되고, 영화 마지막에서 전 은하계 생명체들의 50%가 먼지가 돼 사라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대속을 어떠한 단초도 볼 수 없다. 단지 역대 최강의 힘을 가진 기간을 과거, 미래로 돌릴 수 있고, A 은하계에서 C 은하계로 순식간에 이동 가능한, 한마디로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타노스와 유일하게 맞서 싸우는 어벤져스들만이 영웅이다. 단지 영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선함, 신앙, 정직 등등 모든 가치의 새로운 발현이자 계시가 된다. 20명이 넘는 어벤져스들의 힘을 모아도 역부족인 타노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폭력이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 방법이다.

주지하다시피, 초 영웅들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이번 영화의 고객들은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이다. 영화 내용에 너무 빠진 나머지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그리고 토르 인형을 사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영화 포스터를 사서 방안에 붙이고 심지어는 어벤져스들이 그려진 잠옷을 입고 잔다. 결국 아이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방법은 성경이 아니라 어벤져스처럼 폭력이 된다. 말 그대로 어벤져스는 아이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그리고 되

심으로 떨어지는 비행기를 바다에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아이언맨은 핵미사일 방향을 변경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 따라서 관객들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들의 영웅적인 행위에 감정을 보낸다. 그러나 마블의 이러한 “현실과 희생 구조”는 이미 오래 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교묘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10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 (323)665-9025(광고)
· Fax:(323)665-0056(편집국) / (323)665-0048(광고)
· E-mail : lachpress@gmail.com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포) /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포)
· E-mail :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계절의 여왕 5월을 가정의 달로!

(1면에서 계속)

그가 나의 가족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김남준, “기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다.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다. 혈서를 써서 가까워지기로 한 사이가 아니다. 한 부모에게서 받은 같은 피를 각각의 몸에 공유하고 있는 사이다.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 뿐이다. 가족의 사슬이 단단한 이유, 더 단단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가족, 그 출발점인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은 단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몸을 이루게 하신 집합체다. 가족이 어떤 관계보다 단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한편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를 시

작된다. 6월 중순부터 여름성경학교(VBS)가 시작되기 때문에 5월엔 이미 그 골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제와 기본 프로그램들, 기간과 장소, 이 기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적 열매들과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육 내용,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교우들에게 여

름교육행사에 대한 전체적 광고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교육부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로, 합심 기도자로, 식당 봉사자로, 다 같이 동참하는 광의적 의미에서의 가족이 돼 VBS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5월은 목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산만함이란 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서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기에 예배 분위기가 산만해지기 쉽다.

이는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배 결석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산만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욱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5월이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나가는 희망의 계절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자.

하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만 영적 믿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려 하며, 그것도 ‘기쁘게’ 하려 한다.

이들에게 복음은 변증론을 사용해서 믿음 체계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영적 상태가 대화의 주류를 이루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상태의 접근 방식을 거부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바나의 설문에 따르면, “(이들은) 물질세계를 넘어 생각하고 초월을 경험하는 보기 드문 경향을 보인다. 이런 갈망은 깊고 영적인 대화로의 문을 열 수 있고, 때때로, 아마 기독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할 수 있는 문을 열 수도 있다. 그들의 대화의 경향성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틀림없이 다르다. 이들의 영적 상태의 이해처럼, 교회를 향한 상처와 의심은 다른 곳에서 온다. 이 두 집단 모두 삶의 영적인 부분을 향해 본질이 기울어지고 있는 교회 밖 사람들이 대표한다.

에 선교사로 갔다. 그는 이전에 죄수로 아일랜드인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나 자연을 깊이 이해하는 신비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가톨릭 복음 전통 형식을 썼다. 너무나 과격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충돌하기 시작했지만, 그와 있었던 아일랜드 사

람들은 복음과 문화 사이에 잠식됐다.

아일랜드의 이단 믿음이 장애물로 여겨지기 쉽지만 성 패트릭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영적이지 않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다. 어느 때나 ‘무엇이냐’ 얘기하는 걸 들어 보면 영적 진리와 광대하게 열린 의지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호기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모두는 아니지만 이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자신과 반대

출석률만큼이나 영적 문화적 의식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

바나의 설문에 따르면,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자율성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얻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결국, 자신의 삶과 밖의 세계를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이 사람들이, 왜 영적 행위에서 더 비형식적이고 개인적인지 이해하게 된다.

기독교가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5세기에 성 패트릭(St. Patrick)이 아일랜드

채플린 임상목회 (16)

가족 간병의 애환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자정이 넘어 응급콜이 와서 트라우마센터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ER 담당 간호사에게 들은 말은 환자가 이제 겨우 16살 여학생이고 엠블런스로 실려와 CPR을 시작한 상태이며 함께 온 환자의 부모는 거의 패닉 상태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0여분 만에 도착해 보니 응급실 스태프 거의 대부분이 목회적 돌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일부 여 간호사들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미 사망한 뒤였고 환자의 아버지는 거의 실신 상태로 열병에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만난 경찰관과 경목(Police Chaplain)을 보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원목으로써 환자 가족에 대한 영적 지원을 부탁받고 인계 받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환자가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자살 시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옷장에서 목을 맨 채로 죽어가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환자의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의 부친이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병원 채플린이라고 조심스럽게 인사하자마자, 40대 중반 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허그한 채 슬픔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어깨를 내어주며 함께 그 고통의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의 말도 아니요 충고나 조언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다만 극심한 슬픔의 구렁이 속에서 자책하고 있는 그 자리 옆에서 앉아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가 하는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30분간을 옆에 있었을 때, 그 딸과 가족에 대해 처음 본 채플린에게 마음 문을 열고 사건의 배경을 비로소 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된 어린 환자에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폐증으로 인해 항상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은 간병인을 자처했고 누구보다도 자폐증 남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학교 시간을 제외하면 여덟 가든 동생의 시중을 들며 돕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약 6개월 전에 시작되었는데, 딸이 잠깐 잠든 사이 그 자폐증 남동생이 수영장에서 익사했고, 딸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미수로 그친 자살 시도를 3개월 전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 친구와 함께 뒤늦게 도착한 환자의 엄마 때문에 환자의 부모가 거의 지난 10여년간 별거와 이혼의 상태로 지낸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폐증 남동생을 혼자서 돌볼 수밖에 없었던 가정환경과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환자가 겪었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책감과 고통을 미루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죽음에 이어 딸의 자살까지 연이은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모든 죄책감과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환자의 부모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간단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작은 차들을 하나씩 유족들에게 나눠주고 매직펜으로 환자의 이름을 적고 그 반대쪽에는 자신이 고인을 위해 말하고 싶은 한 가지씩을 적게 한 후,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바구니에 담은 후, 기도의 정원에 그 돌들을 안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은 고인을 기도 속에 눈물 속에 떠나보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 본 응급실 스태프들도 서로 허그하며 유족들이 병원을 떠나갈 때까지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환자의 고통도 우리가 치유하고 돌보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 환자 옆에서 특히 장애우 환자 옆에서 오랜 시간 돌보는 간병인 가족들이 야말로 육신적, 심리적, 영적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tdspark@gmail.com

“내게 맞는 영성만 있으면 된다!”

(1면에서 계속)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특정 종교와 부합하지만, 반년 동안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와 약간 다른, 두 번째 집단은 영적인 상태는 부합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때로 종교를 믿지 않고 이 집단의 12%는 무신론, 30%는 불가지론, 58%는 종교와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믿는다.

최근 피트 홉즈는 ‘나쁜 기독교인(Bad Christian)’이라는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나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현실 세계의 ‘스노 글러브(snow globe)’에 있습니다. 뭘 취하시겠어요? 아직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좋아요. 저처럼, 신화적으로? 좋아요. 자유롭게 하세요. 자, 교회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그 따끔따끔한 느낌, 그걸 느낄 때 알게 되죠.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골프할 때도 알게 되고, 성관계를 맺을 때도 알게 되죠. 그러면 되지, 무엇을 찾으세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BNR)’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에 가장 딱 맞는 접근 방법은 실용성이다. 더 깊은 진리에 들어간다면 된다는 식이다. 이 때문에, 공통적인 영적 행위는 요가, 명상, 침묵, 고독, 자연과 시간 보내기 같은 활동을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태평양 연

안 북서부, 캘리포니아 주 부근이나 콜로라도 주 볼더 시 같은, 종교적이지 않은 문화권이지만 영적 초월 상태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한때 기독교 지대에 있었던 높은 교회

출석률만큼이나 영적 문화적 의식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 바나의 설문에 따르면,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자율성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얻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결국, 자신의 삶과 밖의 세계를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이 사람들이, 왜 영적 행위에서 더 비형식적이고 개인적인지 이해하게 된다. 기독교가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5세기에 성 패트릭(St. Patrick)이 아일랜드

람들은 복음과 문화 사이에 잠식됐다. 아일랜드의 이단 믿음이 장애물로 여겨지기 쉽지만 성 패트릭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영적이지 않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다. 어느 때나 ‘무엇이냐’ 얘기하는 걸 들어 보면 영적 진리와 광대하게 열린 의지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호기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모두는 아니지만 이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자신과 반대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추신 목사님,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온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1. 지원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M.Div. 학위 취득자
 3. 목회경력: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미국 목회 3년이상 경험자)
 4.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5.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 2. 구비서류**
 1. 이력서
 2. 목회 철학과 비전 및 이민 목회의 사명 소견서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4.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5. 최근 1년 내의 2편-5편의 설교 동영상
 6. 목회자 2명의 추천서
- 3. 제출마감일**

2018년 6월 15일
제출처: oc1newpastor@gmail.com
- 4. 기타사항**
 1.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PDF or WORD)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oc1 church
OC1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본 교회는 PCUSA에 소속된 라스베가스 최초의 한인교회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1. 지원자격**
 - 1) 정규대학, 신학대학원 (M.Div) 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분
 - 2) PCUSA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3)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4) 미국 이민교회에서 5년이상 담임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 2. 구비서류**
 -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2) 목회 철학과 비전 & PIF 사본
 - 3) 최근 설교 2회본 (CD or DVD)
 - 4) 대학/신대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5) 추천서 3통 (목회자 및 장로 추천 포함)
- 3. 서류접수안내**
 - 서류접수 마감은 2018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 서류접수는 이메일 혹은 메일로 접수 합니다.
 - 설교는 CD, DVD, 또는 동영상 링크 주소
- 4.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청빙위원장: 장기상 장로 (702.408.2774 / thejangsfam@hotmail.com)
 - 접수: 이메일 / thejangsfam@hotmail.com
메일 / 3500 E. Harmon Ave. Las Vegas, NV 89121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일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말하자면 교회에 가면 믿어야 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배우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있는 이민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민교회를 나가기 마련이고, 따라서 똑같이 한국에서 정든 가족 조국을 뒤에 두고 떠난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라 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대로 만나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미국에 1985년도에 와서 공부하며 이민 목회를 시작했으니 벌써 이민 목회 33년을 넘기는 중

이다. 이민교회의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배우고 고심해왔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민교회의 가장 많은 문제가 바로 '교회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돌아보건대 이민교회 목회의 문제도 결국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교제하는데 발생하는 것들이다. 목사로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어찌 할 것인가?

우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신자와 신자 사이 중요한 원칙은 바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

실이다. 병원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 되려고 가는 곳인 것처럼 교회도 믿을 만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을만한 사람이 되려고 가는 곳이 아니던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된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주님이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 아니겠는가?

사실 목사도 사람이니 죄 허물과 실수가 많다. 함께 생활할수록 더 많이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일 반 평신도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나?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믿을 사람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는가?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믿지 말고 사랑만 해주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만 하라! 성경을 보라! 어디 사람 믿으라는 말이 있는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다. 실망이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대로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는 누구든 용서하고 덮어줄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나는 처음에 LA에서 공부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겼다. 그 때 LA 코리타운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서 구역장되는 권사님이 계를 조직해서 돈을 모아 도망가 버린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일을 보았다. 사람을 믿고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끼리 선한 목적으로 하는 일에도 사탄은 찾아간다. 틀림없이 역사한다.

나는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끼리 동업하는 것도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계약을 확실히 하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잘못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해서 믿음으로 동업했다가 원수가 되어 돈 잃고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고 더구나 아동이 심한 이민생활에서 어쩌다 교회에서 만난사람이라고 믿었다가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나님만 온전하시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해선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때 틀림없이 사탄이 역사한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다른 신자의 얼굴, 그 삶속에 있는 하나님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고보서 2장에는 '내 형제들아 내 구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사랑 의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다. 교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까지 그에게 투자된 하나님 은혜

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렇다.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멀쩡한 제 정신으로는 교회 나와서 앉아있을 수 없다. 자연인의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2천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자신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이렇게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래서 나의 나뉘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는가?

여러분 옆에 그 한 사람도 교회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다. 결코 아니다. 그동안 그에게 투자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벌써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우리가 그를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한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서 교회까지 인도하시느라 온갖 관심과 사랑을 인내하며 쏟은 결과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걸 봐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 하신 일의 결과이다. 그리고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알고 존경하게 된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다. 이 말은 완전한 목사도 완전한 장로도 완전한 신자도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경건의 훈련을 받게 받으며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닌가?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온전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가야 될 사람들이다. 더 깨닫기 위하여 하고 더 다듬어져야 할 사람들이다. 미완성 작품들이다. 모든 지상의 신자들 미완성 작품임을 알고 신자들을 대해야 한다. 초신자 뿐 아니라 아무리 말씀 좋은 목사님이라도, 사람이 많으신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라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도 아직 미완성작품들이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미완성이기 아직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은 다 미완성이다. 이걸 알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런 영적인 눈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바라보자.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이대우 목사
(필라한빛교회)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위해 대서양을 건너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풍랑이 너무나 두려워 나머지 선실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떤 갑판 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나가보니까 모라베안 교도 몇 사람이 풍랑이 이는 그 와중에 갑판에 꿰어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웨슬레는 저들의 평안에 압도된 채 그들에게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도 않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두렵긴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웨슬레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큰 충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라베안 형제들과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에서만이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고 비랑 끝에 섰을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이 이 같은 담대함이 가능하며 이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첫째, 이세상은 환란이 많은 곳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세상

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100 번 이상 나옵니다. 이 세상이란 뜻은 우주(요1:10), 인간(요3:16),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요16:33),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타락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레

는 한계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일 뿐. 나는 지금 희망의 책,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폴립머스는 이사야서 하 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은 그로

는 패배자는 승리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연합군을 창설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대기업을 운영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이기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멸망케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롬8:34-37).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도 이기시고 어떤 시험과 괴로움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고 환란과 고통과 아픔과 마귀의 달콤한 유혹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서 이겼으므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조상들이나 신앙의 영웅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한결같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함이었습니다. 사실 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은 이미 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함성과 각종 유언비어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혼란케 하고, 전열이 흩어지게 하고, 마침내 전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사탄의 전술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신중함과 명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긴 자이시며, 능히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몸

그러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때려 눕혀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간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갈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런 승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해져서 심해와 난간과 비관과 슬픔과 맞붙어서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는 것이고 승리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자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자기들이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담대함을 가질 것이라고 해서 10일 동안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충만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의 생활입니다. 패하는 자 같으나 승리자의 삶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자가 있고 함께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edaewoo19126@gmail.com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서 이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다줍니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는 온갖 환난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현대인의 삶은 불안, 공포, 미움, 좌절감, 죄책감 등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업실패, 사랑실패, 생활고를 비롯하여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무릎 꿇고 파멸의 길을 택한 자입니다. 자살자들의 대부분의 동기는 이젠 더 이상 살길이 없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항상 평안하게 항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와 싸워야 하고 비바람과도 싸워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떠난 후 그와 선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선원들은 콜럼버스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는 스페인으로 다시 귀향하려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

말미암아 발견되었습니다.

각박한 세대에서 재난과 박해로 멸시와 천대, 거부와 같은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꺾고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이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엄격히 다름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어주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이기었노라 하는 말은 승리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한, 그런 지도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렇게 말한 적 있었지만 일 시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세상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6.25 한국전쟁 때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병사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 한 종군기사가 죽음을 기뻐하며 가장 많이 느끼고 있던 한 흑인 병사에게 녹음을 들이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전 세계로 타전되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대답은 "Give me tomorrow." 그 병사는 내일을 희망하였고 내일이 있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흑인 병사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

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병원을 찾는데, 병원에 가서 좋은 소식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의사 만나보세요,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큰일 났다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왜 먹으라는 약을 안 먹었냐고, 왜 맘대로 자기의 몸을 그렇게 관리하냐고 합니다. 의사와 병원을 찾는 인생이 기쁜 소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찾아야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입니다. 키가 3미터 정도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모든 투구나 칼이나 갑옷이나 그 엄청난 무기를 쥐어지고 힘을 쓰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투구나 칼이나 갑옷이나 지워 주니까 무거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골리앗은 '너희는 장수가 없어서 막대기 들고 나오는 그 에 같은 다윗을 보내느냐 내가 그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던져 버리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기독교 서적과 성경까지 금지하는 AB-2943 법안

AB 2943의 현재 긴급 상황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사기 죄 또는 사기성 동성에 전환 치료(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를 금지한다”는 명목 아래 AB-2943 발의안이 캘리포니아 하원(assembly)에서 4월 19일 표결에 부쳐져 50 대 10으로 통과되어 주상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만일 5월 중순에 상원에서까지 통과된다면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 민주당)이 서명할 것은 거의 정해진 사실이며 그것은 곧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을 인용한 목회자들 설교, 기독교 미디어, 복음방송, 기독교 상담, 서점, 교회 집회, 세미나, 성적으로 혼돈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상담 의료 및 건강 전문가들에게까지도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영향과 부당한 법적 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SB 2943을 만든 주인공의 주장

이 발의안을 제출한 사람은 에반 로(Evan Low, 민주당, South bay, 실리콘밸리) 하원의원으로 자신이 게이라고 공공연히 발표된 사람이자 자신이 “어릴 적에 받았던 전환치료로부터의 몸살 경험”을 통해 이번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발의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력히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반 로는 2012년 Campbell(CA)의 부시장으로도 있었습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3월 23일 에반 로 외에 8명의 민주당 소속 “동성애 운동가”로 알려진 의원들과 함께 제출되고 100% 민주당의 지지와 2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의 찬성으로 현재 상원까지 올라갔습니다.

SB 2943, 무엇이 위험한가?

당연히 “사기적인 상담이나 관행들”은 차단되어야 합니다만 애매모호한 “기준”과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느냐”는 그동안의 진보/좌파 정치인들의 전력을 볼 때 심각하게 우려할 일입니다. 광범위하고 기준 없는 애매모호한 문장들입니다. 예를 들어,

SEC. 3 1770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나 임대로 이어지는 거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사용하여 개인의 성적 취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불법화한다.”

누구의 기준과 원리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여기서 누가 “불공정함(inappropriate)”의 기준과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의 기준을 정하며, “성적취향을 바꾸려는 시도”



는 어디까지 시도도 어디까지가 돕는 것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부당한 소송에 걸리거나 또는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성애운동가, 진보좌파 정치인들은 동성애 라이프스타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즉각 “혐오자, 증오자, 편협자”로 주류 미디어까지 합세 시켜서 기독교인들을 낙인찍고 있다는 그동안의 사회 현실만 봐도 이 발의안이 법안이 되면 어디로 어떻게 흐를지 훤히 보이는 듯합니다. “SEC.3.1770 of the Civil Code is amended to read:”에 적힌 문장 곳곳에 “advertising, 홍보, 거래”에 대해 적고 있는데, 여기 적

힌 “advertising”에는 성적으로 혼돈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온 “책들, (설교)노트, 상담 및 서비스 판매”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 사항으로 적혀있습니다.

AB 2943 본문 1770: (a)The following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undertaken by any person in a transaction intended to result or that results in the sale or lease of goods or services to any consumer are unlawful: (이 문장 이후 28개의 소항목과 그 숫자 안에 알파벳 순서로 항목들이 또 나오는데 모든 설명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홍보와 동성애 치료 거래에 관련되어 있음)

1. 성적정체성의 전환치료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에 기초한 상담부터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

의 자유”가 법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성인들의 성 정체성에 있어서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2. AB-2943에 강조되고 있는 문장에 의하면 “APA와 현대 과학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체성 일부이며,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2009년에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오바마 정부 및 동성애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동의하고 내놓은 문구를 적용한 것입니다.

3. 기독교 법률단체인 Liberty Counsel의 설립자이며 회장인 Mat Staver는 말하기를 이 법안이 특별히 위험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주로 LGBT 입법 안건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는 2017년 SB1172 법안이 시민들의 투표도 없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성적정체성 혼돈을 도와주던 상담치료(주로 기독교)를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고 곧이어 오레곤, 뉴저지, 버몬트가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수두룩한 반기독교 법안들을 시민들의 투표 없이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전례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4. “성경책을 금지한다”라는 단어는 비록 발의안 문장에는 없지만 이들의 모든 문장들을 읽어 보면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장들이기에 ‘서서히 성경까지 위협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201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법적 문장에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문장이 없었으며 이 일을 도모했던 오바마 정부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신앙을 지키고자 동성애 손님들과의 거래를 거부했던 꽃집 할머니, 케익집 주인, 그 외 기독교 비즈니스 주인들, 목사, 카운터 사무원(Clerk), 군인, 학생, 학부모 등등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려다 소송에 걸리거나 감옥에 가고 또는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긴급서명운동: Tvnex.org에 가서서 간단한 온라인서명운동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tvnext.org@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부목사나 담임 목사 청빙을 받기도 쉽지 않고 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도원에 가서 몇 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개척교회의 첫걸음을 내딛으려 할 때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주십시오.

-세리토스에서 Yang

A: 교회를 개척하려는 목사님께 먼저 격려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개척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학적 표현을 빌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축복의 땅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생명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김석년 목사가 쓴 “패스 브레이킹(Path Breaking)”이란 책을 꼭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 가치를 조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교회개척의 소명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개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성장 컨설턴트인 짐 워버가 10년 동안 100% 성장하여 2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확신과 현재 목회 위치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

교회개척 소명에 확신 갖고 한 영혼에 집중하며 정도 추구

척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척자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일에 내 인생을 불사르리라는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상의하여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려주는 데가 없어 하 수 없이 개척한다는 것보다 처음부터 교회목회의 동기와 장기 청사진을 그려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한 영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개척은 3고(苦)의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인간적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개척자가 누릴 수 있는 비전은 원맨 비전(One Man Vision)입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육한을 목사가 쓴 “제자훈련 열정 30년”이란 책을 보면, 미국에 와서 빌리 헨크스의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는 중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빌리 헨크스는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거시오”라고 육 목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집중하여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면 결코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소외의 현상이 더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만큼 큰 사역은 없습니다.

셋째, 성공보다는 정도(正道)를 추구하라. 성공은 정도의 결과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성공에 집착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궤도를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먼저 정도를 걷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한 편법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숫자지향적인 목회보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잘 준비하여 그들에게 질(Quality)적인 향상을 주는 목회를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수(Quantity)가 따라 옵니다.

하버드대학 시절 강의를 마치고 나오던 나우웬은 문 앞에서 정신장애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우웬아, 네 지식으로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마침내 그는 강단을 떠나 정신 박약장애인 공동체에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섬김의 목회를 실천했습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자신과의 영적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개척교회 할 때 목회 외로움을 잘 극복하시고 한국 선교사였던 서서평의 성공보다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의 자세로 개척하십시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Ph.D. in Leadership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파키스탄인(INDO PAKISTANI)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원래 인도 대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살고 있다. 이 종족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전도된" 종족으로 분류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소수 있다. 이러한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코트디부아르, 자이레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멘에 살고 있으며 70만 이상의 인구에 달한다.

예멘과 자이레에 있는 대부분의 인도-파키스탄인들은 힌두교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람들은 주로 이슬람교도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인 힌두어를 사용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양한 인

도의 언어를 쓴다. 또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도 사용한다. "인도-파키스탄인"이란 인도에 기원을 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쓰는 언어 지역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쓰는 용어다. 이를테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은 구자라트족, 힌두족, 펀잡족이지만 그냥 통틀어 특히 인구조사의 편의상 인도-파키스탄인이라고 단순히 부르는 것이다.

삶의 모습

힌두교도들의 삶은 전통적으로 "카스트"(castes)라고 알려진 엄격한 사회계급 제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 카스트는 사실은 주로 직업에 기반을 둔 문화집단이며,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같은 카스트에 들어간다. 이러한 카스트는 하위 카스트로 분류되며, 다시 훨씬 더 작

은 사회계급으로 분류된다. 카스트 제도는 매우 엄격하며, 한 카스트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태어난 카스트에서 다른 카스트로 바뀌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의 카스트 내에서만 결혼이 허용되며, 또한 그러한 카스트에 맞는 직업만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부유한 상류 카스트의 인도인들만이 다른 나라로 이민갈 수 있었다. 다른 나라에 도착한 후에 대개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게 된다.

"브라만(Brahmans)"은 최상위의 힌두 카스트가 된다. 이 계급은 종교인이나 학자들로 이루어지지만 인도에 끼친 영국의 영향으로 교육의 기회는 점점 다른 대부분의 카스트에게도 파급되었다. 그 밖에 힌두교도인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인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영국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 이러한 이민 집단은 그들의 의상에서 서구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힌두교도인 인도-파키스탄인들 일부는 아직도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데, 남자들은 "도티(dhotis)"라고 하는 허리에 걸치는 옷을 입고 여자들은 허리를 감싸고 어깨나 머리까지 덮는 "사리

(saris)"를 입는다. 그들 대부분은 또 전통적인 인도 음식을 먹고 있으며, 힌두 계율이 채식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도-파키스탄인들 대부분은 육류를 다소 먹는다.

이슬람의 영향은 인도-파키스탄인들 일부에게는 강하게 미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사람들에게 그러하다. 그곳의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여자들은 무슬림 여자들이 흔히 입는 검은 색의 헐렁한 "차도르(chadors)"를 입어야 한다. 차도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과 그리고 얼굴 대부분을 덮게 돼있다. 차도르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나 라마단(람잔) 기간에 많이 입게 된다.

그 밖에 힌두교도인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정부에 의해 2류 시민으로 대우 받는다.

신앙

힌두교는 다신교이며, 가장 중요한 신은 "브라만(Brahman)"으로서 만물의 창조주다. "비슈누(Vishnu)"는 보존자이며, "쉬바

(Shiva)"는 파괴자다. 또 중요한 힌두신으로는 쉬바의 아내가 있는데, 여러 이름을 갖고 있으며 "두르가(Durga)", "칼리(Kali)", "파르바티(Parvati)", "우마(Uma)" 등으로 불린다. 파르바티나 우마로 불릴 때, 그녀는 사람이 풍부한 어머니상의 여신이 되지만 두르가나 칼리가 되면 파괴의 두려운 여신이 된다.

힌두교 계율에 따르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영혼이 있다. 영혼은 다양한 형태를 띠며 죽은 뒤에 환생을 거듭하며 영원한 생을 살아간다.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 그의 영혼은 보다 더 나은 상태로 태어나고, 악한 삶을 살면 보다 못한 모습, 심지어는 벌레로 태어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율법은 영혼이 영적인 완성을 이루어 한 차원 높은 존재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반대로, 이슬람교도들은 알라라고 하는 단지 하나의 신만이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다섯 가지 "기둥"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행위의 종교다. 무슬림은 "알라 외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예언자이다"라고 시인해야 하며,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라마단(람잔) 기간

에는 금식을 하고, 일생에 한번 정도는 메카로 순례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힌두교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그들이 종교적 소수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간다. 자이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황폐하게 했던 근년의 내전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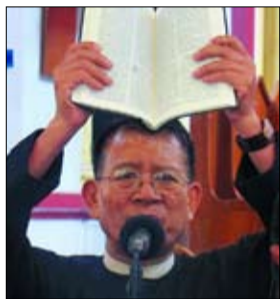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은 기독교 선교사가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인도-파키스탄인들에게 전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자이레에서, 내전의 선교사역을 방해했으며, 인도-파키스탄인들 사이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 코트디부아르의 이슬람교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 종교의 12%가 기독교인이지만 현재 코트디부아르의 인도-파키스탄인들 중 극소수만이 복음을 들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대한성서공회, 미얀마 레미 부족어 신약성경 봉헌

대한성서공회는 미얀마 양곤의 성삼위일체교회에서 레미 부족어 신약성경 봉헌식을 개최했다. 이 레미 부족어 신약성경은 2만여명에 달한다. 부족민들은 미얀마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있으나 부족어 성경이 없어 번역 성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얀마성서공회 이사장 자오 윈 목사는 지난달 24일 현지에서 개최한 봉헌식에서 "레미 부족 주민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신약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축하했다. 설교를 맡은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목사는 "신약성경 봉헌으로 레미 부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레미 부족어 성경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이었다. 당시 영어 알파벳을 기초로 레미 부족 문자가 만들어졌고, 이후 일부 복음서가 번역됐다. 본격적인 신약성경 번역 작업은 2002년 시작돼 15년 만인 지난해 비로소 완료됐다. 일산광림교회는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번역과 제작을 도왔다. 대한성서공회는 3100여의 성경을 전달했다.

미얀마 전체 인구는 5300만명. 뿌리 깊은 불교 국가로 기독교 인구는 전체 6% 정도다. 기독교는 미얀마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억류 미국인 석방, 미-북 회담 막판 변수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이들은 지난 주말 판문점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석방이 늦어지면서 북-미 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인 억류자 3명은 지난 주말 판문점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었다"며 "판문점을 통한 송환은 유엔군사령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일여서 미리 통보가 됐지만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북-미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억류자 석방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지켜보라(Stay tuned)"며 이들의 석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루 뒤에는 대통령의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지사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몇 시간 안에 석방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백악관은 북한이 북-미 회담 이전에 이들을 선의로 풀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줄리아니는 지난 5일에는 "며칠 내로 풀려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억류자들의 석방이 지연되자 미국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석방 교섭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이를 예고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1996년 미국인 억류자 에반 헨지커를 석방하기 위해 방북한 경험이 있는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과의 교섭은 조용히 진행돼야 한다"며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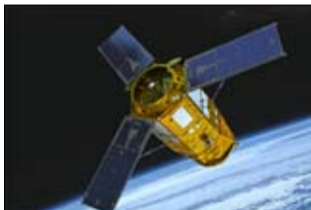
럼프 대통령과 줄리아니는 발언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실제 석방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석방에 대해 말을 해선 안된다"며 "석방이 임박했다는 추측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고 억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미 회담 장소와 관련해 북한은 줄곧 평양을 고집하고 있으나 미국이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싱가포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다만 싱가포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평양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게 VOA의 분석이다.

악시오스는 북-미 회담이 판문점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악시오스는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석방을 지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북, PVID · 인공위성 놓고 막판 물밑 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정해졌다"고 밝힌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발표를 앞두고 북-미 간에 미묘한 긴장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양측이 비핵화 수준과 포기할 무기의 범위를 둘러싸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세 급개혁 토론회에서 "북한과 논의가 잘 되고 있으며 날짜와 장소 모두 협의가 끝났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전날에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거듭된 발언에 비춰보면 실제로 북-미 회담 날짜와 시기를 타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북-미 간에 뭔가 새로운 대적점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높은 기준과 함께 핵 이외 다른 것들에 대한 포기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비핵화 수준과 관련해 미국은 연일 '영구적인(permanent)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직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을 만나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도 지난 2일 취임사에서 항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핵 폐기를 강조했다. 미국은 기존에는 항구적이라는 표현 대신 완전한(Complete)이라는 말을 써 왔다. 항구적 폐기는 일회성 핵 폐기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볼턴 발언 중 폐기 대상에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될 것도 눈에 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7일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에는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을 시험발사할 때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경제 압박도 달라진 게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통화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 현 수준의 경제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북한이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도 '대립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미국이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제재 압박의 결과

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동시에 핵 포기 전까지 제재·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미투 논란에 선정 취소

노벨상 가운데 문학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최근 발생한 미투(#MeToo) 논란 때문에 올해 시상할 취소를하기로 했다.



노벨문학상 시상이 취소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영국 BBC방송은 4일 한림원이 올해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림원은 "올해 문학상을 시상하지 않고 내년엔 두 명의 수상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한림원이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림원 종신위원인 시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이자 스웨덴 문화계 거물인 사진작가 장 클로드 아르노에게 여성 18명이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림원이 미투 운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여기에 더해 프로스텐손이 1996년 이후 7차례나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종신위원 3명이 프로스텐손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발한 위원들이 줄줄이 사직했다. 이후 사라 다니우스 한림원 사무총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프로스텐손도 뒤이어 물러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림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올해 문학상 시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BBC는 "이번 논란은 1901년 노벨문학상이 제정된 이후 한림원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림원은 5일 주례 회동에서 조직 운영 관행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앤더스 울손 사무총장 대행은 "한림원 위원들은 현재 처한 신뢰 위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다음 수상자가 발표될 수 있을 때까지 대중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 파이버 · 팀 켈러,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권 설교자 12인에

미국 존 파이버(사진 왼쪽)와 팀 켈러(오른쪽) 목사가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2인에 포함됐다.



미국 베일러대학 교 트루엡신학대학원은 최근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12인을 발표했다. 파이버, 켈러 목사 같은 개혁주의 목회자부터 고전적 설교가 척 스펄텐 목사까지 거물급 복음주의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 트루엡신학대학원은 800여명의 후보 중 12명을 선정하면서 후보의 설교가 얼마나 성경에 부합하는지와 언어전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이버 목사는 설교로 젊은 층에게 개혁 신학을 대중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베들레헴침례교회에서 목회 중인 그는 2010년 개인교 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켈러 목사는 뉴욕 리디머장로교회의 설립자이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켈러 목사는 2015년 그의 저서 '설교'에서 신앙 공동체를 목회함에 있어 강해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 교회 지도자들 "남북 화해 · 영구 평화" 기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 역할을 모색한다. 독일 하노버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RC·사진)는 9-16일 서울 중



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 교회의 소망을 모은다.

전 세계에서 모인 40여명의 실행위원은 첫 공식 일정으로 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한신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 기도회'를 열고 남북 화해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12일 오전엔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를 방문해 분단 현장을 돌아본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북한을 방문한 크리스 퍼거슨 WCRC 사무총장이 보고할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퍼거슨 사무총장 등 세계 교회 박목사는 지난 3일 평양 조선조선교요연맹(조그연)을 방문해 강병철 위원장을 만났다.

WCRC는 남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그연과의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퍼거슨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바이다.

WCRC는 세계 109개국, 230개 교단이 소속된 개신교회 연합기구로, 국내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가 회원이다. 실행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은 한경균 예장통합 기획국 실장은 "실행위원회에선 WCRC의 사업에 대한 검토와 결의가 진행되었지만 평화 분위기가 가득한 시점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평화 한반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즈니,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출연 중단

35년 동안 해마다 열리던 월트 디즈니의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이 갑작스럽게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디즈니는 중단 이유를 '단순한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플로리다 주 지역 일간지 올랜도센티넬은 최근 "디즈니월드의 대변인이 지난해 열린 뮤직 콘서트 마지막 이벤트였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디즈니의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나이토 오브 오브'는 1983년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의 '매직 킹덤'에서 처음 열렸다. 2008년까지는 매직 킹덤에서 열리다가 2009-2010년에는 디즈니의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후 팬들의 요청으로 다시 매직 킹덤에서 개최됐고 2016-2017년에는 ESPN 와이드월드 오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렸다. 지난해 페스티벌에서는 두 번째 날 공연이 허러케인 여마(Irma)의 영향으로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 에이미 그랜트, 자스 오브 클레이, 뉴스보이스, 캐스팅 크라운즈, 크리스 탐핀, 커크 프랭클린, 마이클 W. 스미스, 씨씨 와이언스, 스트라이퍼, 데비 분 등 유명 가수가 공연하는 크리스천 음악인들은 페스티벌의 단골 초청 대상이었다. 페스티벌이 왜 중단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디즈니월드의 대변인은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는 디즈니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0. 박용학(?-?)

박용학 목사는 1929년 직조공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도미하였다. 삭도와 상항에 거주하다가 텍사스 주 조지타운의 사우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1935년에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해 두 명에게만 주는 학교 장학금을 받은 그는 같은 주 달라스에 있는 남감리교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하여 "달라스의 맥스칸 슬럼프의 감리교 선교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하고 1936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학위는 문 서문에는 도미할 때 그의 주머니에 18달러를 가지고 있었고, 단지 두 명의 미국인을 알고 있을 뿐이었지만, 알게 된 수 백 명의 미국인 친구와 많은 기회를 준 미국에 감사했다.

그 해 10월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시카고 아메리칸 음악원을 졸업한 박원정의 독창 순서와 함께 상항 한인교회 엠틀 청년회에 서 강연을 하였고, 이른날 태양환선편으로 귀국했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하며 1938년 11월에 결혼했다. 1940년 9월 그는 도미하여 시카고의 동양무역상회에서 근무한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장기형 목사가 떠나자 박용학이 1941년 7월에 라이언 감리사의 요청으로 오클랜드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그 달 13일 주일 환영식은 조성학의 사회로 오클랜드 지방회 대표 김은혜의 대표기도, 주일학교 학생들의 환영노래, 임케트린의 피아노 독주, 김광보의 성경봉독이 있던 후 박용학이 답사를 하였고, 이어 김자혜가 감상담을 말했다. 이날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도미한 제민

스 C. 베이커 박사도 참석했다.

1941년 9월 14일 주일 하오 1시 반에 박용학은 중국인 찬관 중앙루에서 오찬을 배설하고 교우를 초대하여 1시간 친목회를 가졌고, 그 달 28일 하오 5시 반에는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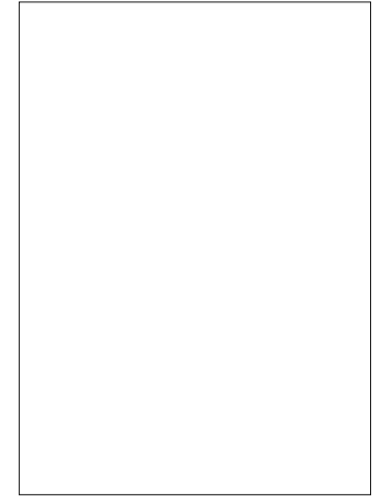
회를 장려하기 위하여 여관 식당 제2호에 만찬회를 배설하고 연향을 같이한 다음 희락회 순서로써 밤이 늦어 산회하였는데 재유하는 한인 장로는 교회와 청년부에 대한 노력을 고담게 여겼다.

김은혜의 독자 김앤드류와 나성의 이 암의 삼녀 이에마의 결혼식이 나성에서 있던 후 1941년 10월 15일에 상항 중국인 도도관관에서 100여명을 초대하여 피로연을 가졌을 때, 박용학은 재미로운 순서를 진행하였는데 10시 반에 헤어졌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박용학은 본국의 부인이 보낸 편지에서 15살 된 아들 참적을 보았다는 소식을 읽고 몹시 섭섭했는데 교인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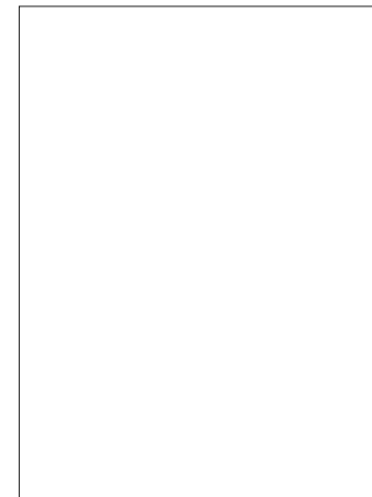
박용학의 대표적인 사역은 예배당 확보였다. 6천 달러 상당의 일 본인 예배당을 인수받았고 그는 예배당 의자를 봉헌했다. 그해 11

월 20일 하오 7시 반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박용학의 사회로 박용학과 김자혜, 노신태, 안영호가 각각 다섯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특별히 본 교회가 창립 20년 이래 남의 집 방 한칸을 얻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을 마련함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고 감사하였다.

1941년 12월 25일 상오 10시 반에 드린 성탄예배는 예년에 비해서 단순하였다. 박용학의 사회로



박용학 목사 (1934년)



오클랜드 한인교회

임케트린의 피아노 독주, 조 폴의 기도, 노성식의 성경이야기, 노성애의 피아노 독주, 중학생들의 특별찬양 이후 노신태 전도사의 어

린 딸들이 '그 어리신 예수'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듣는 일반 교우들은 많은 기쁨을 얻었다. 이후 안영호와 조성학과 김자혜가 차례로 성탄 감상담을 소개하였고, 성탄예물을 분급하고 동 12시에 산회했다.

이듬해 2월 1일 하오 7시에 버클리에 있는 미국인 감리교회의 청함을 받아 그 곳에서 한달형의 '전쟁 중에 있는 한국의 현상'이라는 강연과, 노성애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성애와 노성주 및 안수애의 삼중창에 이어 박용학이 '한국의 장래'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는데 많은 환영을 받았고, 이어서 임케트린의 피아노 독주와 노성주의 독창이후 사교실로 자리를 옮겨 기쁘게 놀다가 10시 반에 마쳤다.

연회보고에 따르면 1941년에는 35명의 등록교인이 있었고 모두 활동교인이었고, 엠틀 청년회원은 11명으로 보고되었다. 1942년에는 등록교인수가 전년과 같았고 엠틀 청년회원은 전년보다 1명이 적었는데, 주일학교 학생은 25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용학은 삭도 한인교회도 섬겼지만 본 교회 보고는 없다.

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 민 등 4명과 함께 안내자의 차에 올라 남가주 샌디에고로 떠났다. 되돌아오리라는 실낱같은 소망만 가지고 그 해 6월 그는 태평양 전쟁에 투입된다.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었던 과달카날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함께 시민권과 다시 참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시민권은 한국인으로 산다고 거절했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재 참전도 거절했다. 이 일로 그가 "싸우는 목사"라는 별명을 갖게 된다.

박용학은 1년간의 군복무후 1943년 6월에 제대한다. 그 달 13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그는 다시 본 교회 책임목사로, 그가 강단을 비웠던 1년 동안 목회했던 김창수 목사는 부목사로 취임한다. 교인들은 이 두 목사의 취임에 교회의 진흥을 바라고 기뻐했다.

이날 노신태 전도사는 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을 기쁘게 맞다는 인사말을 하였고, 박용학은 '서로 용서하고 또 믿는 마음이 굳건하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답사를 하였으며, 김창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도덕적 생활을 근거로 교회 사업과 광복 사업에 많은 유익을 얻자'라고 답례했

비 활동교인이 8명이나 되었다. 주일학교 학생은 전년도의 보고와 같은 25명이었고, 엠틀 청년회원은 2년 전과 같은 10명이었다. 예배당은 해리스 스트리트 520번지에 위치했다. 본 교회를 섬겼던 박용학은 삭도 한인교회도 섬겼는데 1943년도의 연회보고에는 본 교회 보고가 없다.

전별회

1944년 2월 20일 주일 하오 11시 반에 한인예배당에서 상항교회 김태태 목사의 사회 하에 박용학 목사 송별회 및 새로 부임하는 김태태 목사의 환영회를 겸하여 연다. 오랫동안 동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던 박용학의 사면을 섬섬히 여겼는데 교인 일동이 마련한 기념품에도 아쉬움을 담아낼 수 없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사임한 박용학은 1944년 2월에 상항 해군영에 취직했다. 그해 4월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국에 있는 그의 부인이 작년 10월에 적십자사를 통하여 남편의 생사가 그리워 보낸 것이다. 이 귀한 소식을 받은 박용학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사랑받는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으니 참으로 꿈같은 소식! 기쁜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기뻐하였다. 신한민보는 '전사로 인하여 작별된 후 생사를 몰라 궁극한 부부의 정의를 오고가는 구름이나 부처불 깨라며 기뻐해 주었다.'

독립운동과 동포사랑

박용학은 텍사스에서 공부하던 1934년 하기 방학 때 인근 교회를 방문하고 한국 사정을 소개했는데 조선의 독립이 주제였을 것이다. 본 교회를 섬기던 1941년, 순국선열 기념식에서 그는 '우리는 선열의 뒤를 따라 독립을 완성하자'라는 구호 인도를 담당하였고, 또한 국민기부금과 독립금을 기부하는데도 열심이었다.

동포사랑에도 힘을 모았던 그는 1935년 9월 평양 송의학교 교장 소말린 선교사가 상항을 방문하였을 때 가난한 유학생임에도 건축 헌금으로 1달러를 기부했고, 귀국한 후 나성 한인양로원에 기부금을 보냈으며, 7년 전에 귀국하려 했던 나성의 이형태가 1944년 9월에 신경쇠약으로 별세하자 상항에 거주하던 그는 부의금으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1945년 6월 상항에 재류하던 박용학이 최근 차정석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신한민보의 기사 이후 그의 이름은 한인사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damien.sohn@gmail.com

1929년 도미, 학위 취득후 1936년 귀국 연희전문학교 종교학교수로 재직
1940년 재 도미, 오클랜드한인교회 담임목사로 6천불 일본인 예배당 인수
1942년 입대 태평양전쟁서 훈장받고 1943년 6월 제대후 재취임 목회사역

다. 그날 12시 반에 중국인 찬관 경활루로 자리를 옮겨 환영회를 열고 오후 2시에 헤어졌다.

책임목사로 취임한 그 달에 상항에 유학생회 지부가 성립되었는데 박용학은 남궁탁, 최정숙, 김덕순 그리고 우케톨과 함께 집행부내의 재무 위원으로 선임되어 집행위원장 김재훈을 돕게 된다. 김창수 부목사가 1943년 8월에 육군으로 징집된 다음 달에 박용학이 상항예배당 수리를 위하여 헌금을 한 후 동방으로 전향하여 각지를 역방하고 그 해 12월 27일에 상항에 회환했다.

아마 사택중수 모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1944년 본 교회 목사 사택 중수를 하였고, 박용학 목사를 통하여 연조한 분께 본 교회 임원 일동이 감사를 드리는 광고가 신한민보에서 발견된다.

1943년의 등록 교인수는 35명 이었고 이전 두 해 보고와는 달리

"싸우는 목사"

1942년 5월 박용학은 뜻밖에 입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리더십 코멘터리 (64)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절망의 때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때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워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신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는가? 당신의 인생항해를 방해하고 있는 파도는 무엇인가?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악순환으로 기진맥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좌절과 어두운 골짜기에 갇혀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포기하진 말라.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

갑자기 직장을 잃고 렌트비를 못 내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절망의 때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때이다. 모든 경제적 체재의 전조를 알리는 것은 희망의 쇠퇴이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희망이 남아 있다. 어디서든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새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불행한 과거를 단절하라. 리더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긴장과 스트레스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여행을 하다보면 록키 산맥 부근에서 갑자기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범핑(bumping)이 심할 때가 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 마치 운몽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 들지만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곧 잠잠해지고 평온해진다. 먼 거리를 여행하다보면 항상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잠잠하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고,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경우를 만나기도 된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이다. 살다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우리 삶에 고난과 풍랑이 찾아온다.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오고, 계속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이어진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고난과 스트레스가 있는 삶이 좋은 것이고 유익한 삶이다. 바람이 불면 나무뿌

고난의 파도타기 잘해서 극복하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 잠재능력 개발하지 않는 삶은 자살행위, 최선 다해 살아야

리가 깊이 들어가 나무는 튼튼해진다. 적절한 상태로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인생도 적절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어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난의 때에 파도타기의 달인이 되라

어느 날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오면 처음부터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파도타기를 잘해야 한다. 고난을 극복하면 삶에 큰 유익이 된다. 인생의 풍랑이 부딪혀 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풍랑이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인생에는 절대로 풍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풍랑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항상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역경을 만날 때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더 높은 차

원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한다.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세상에서 자기 분야의 성공을 이루려면 가슴이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해야한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극복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고난을 통해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고난은 거룩한 병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고,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으며, 내가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날을 맞보았음을 기억한다. 당신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거룩한 병이다. 믿음을 가지고 겸손과 성실로 기도하며 인생을 살면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달 할 것이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엔 해답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안

면의 뿌리 깊은 계층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고 중간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침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점심에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리고 저녁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과거는 오늘을 해석하는 지침이고, 현재는 미래를 위한 발판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리더가 되라.

일을 다 하고 죽은 무덤은 없다

야구에서 홈런을 치고도 아웃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타자가 홈런을 치고 1루부터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유유히 홈을 잡으며 홈까지 들어왔지만, 중간에 어느 한 루를 밟지 않고 들어왔다면 그 선수는 만루 홈런을 쳤어도 아웃이 되고 만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아까 2루를 안 밟은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한 바퀴를 더 돌 수는 없다. 홈런을 쳤어도 내야를 돌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일을 다 하고 죽은 무덤은 없

다"라는 속담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은 채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져 간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던 사람도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되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후회가 눈물짓게 만들고 가슴에 한을 남긴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이런 후회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성공의 축배를 맞볼 수 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는 리더는 그럴 겨를이 없다. 성공하는 리더는 실패할 겨를이 없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조건을 따지지 말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불행한 과거를 단절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서신대학교 교수)

가장 소중한 것

우리학교에는 다른 신학대학원과 다른 독특한 과목이 몇 과목 있다. 몇 년 전에 커리큘럼을 수정하면서 새로 생긴 과목들인데 그 중에 하나 참 유익한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과목이 도시체험 (Urban Immersion)이다. 학생들이 3박4일을 LA 도심지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다니며 도시의 여러 문화권과 노숙자들이 머무는 곳을 체험하는 과목이다. 그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목회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 각 그룹이 보고 느낀 것을 발표하는 시간에 한 그룹이 어느 공원을 방문했던 경험을 나누었다.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공원이었는데 한 분이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나 그 말을 들으려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반면에 그 공원 다른 쪽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긴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양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최근에 접했던 책 이름이 떠올라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았다.

얼마 전에 집에서 책장을 둘러보다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001가지" 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내가 구입한 책은 아니었고 어느 컨퍼런스 같은데서 선물로 받은 책 같았다. 제목이 특이해서 대체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죽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려고 책을 열어보았다. 감사하게도 저자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한다고 한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었다. 신약성경을 읽고 대답하도록 만든 질문 1001개를 묶어 놓은 책이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어느 크리스천 부부가 아내의 암 투병 이후에 덤으로 얻은 것 같은 남은 삶을 어떻게 보람 있게 살 것인지 생각하다가 쓴 책이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짧은 성경본문을 주고 그 본문을 읽은 후 질문에 대답하게 한 일종의 기독교 핵심교리를 다룬 책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부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정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일 것이다.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서 대답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친구가 말기 암 환자였던 교회 분을 방문한 것인데 그분의 아내가 "당신 구원 받았지?" 라고 묻자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던 그 분이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해서 무척 당황했었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다행히도 그 분은 임종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시 말하셨다고 한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 가다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무의식중에 놓치기가 쉽다.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천천히 해도 괜찮은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배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은 불필요한 일에서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할 것 같지 않다.

삶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시간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주님 앞에 설 순간을 위한 이 땅에서의 준비인 것 같다.

lpyun@apu.edu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세상은 변한다.

십년이면 산천이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십년은 고사하고 이제는 몇 개월만에도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다반사로 벌어진다. 물론 사람들은 이보다 더 빠르고 변하고 있다. 쌍둥이마저 세 대차이가 날 정도라고 하니 무변(無變)도 정함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의 선호도 혹은 인식의 변화도 이에 못지않다. 어느 때는 고가도모가 절실하며 그것을 시행한 정부가 찬사를 받더니 불과 십 수년이 흐른 뒤에는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면 여론이 들끓

기도 한다. 육질심 세가 된 세대는 반공을 국시로 삼는 것이 지당하다고 배웠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철칙과도 같았다.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자는 경기를 일으킬 만큼 거부하며 눈을 부라리기도 했다. 붉은 색만 보아도 소름이 돋을 만큼 그때는 그것이 대세였다. 소련이 붕괴되어 갈갈이 흩어지고 중공과 1992년 수교하며 중국이 되면서 그 정도가 많이 희석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공산당에 대한 반감은 큰 것이 사실이다.

변하는 세상과 인심은 이제 사상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실상 반공을 국시로 삼는 대한민국의 고위층과 깊은 곳까지 이념이라면 간첩이라고 불릴만한 이들이 포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춰진 뒤에서 영영히 드러내놓고 국정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공산당·주사파·진보주의자가 변연히 행세하는 대한민

국일 것이라고 누가 입이라고 뺨칠 수 있었을까? 지금의 국정이 하도 세차게 바뀌고 혼란하여 과연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마저 쉽지 않다. 여전히 사회주의 공산당인지, 아니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일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불과 며칠 전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수뇌가 회동하면서 그런 사실들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한 반도에서의 비핵화로 시작된 최고 조의 위기가 일순간 급진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내다보며 휴전상태가 종전될 것이라는 청사진마저 그려지고 있다. 오늘 뉴스에서는 “북한은 이미 베트남식 개혁·개방과 관련한 연구를 상당히 축적한 상태”라고 전하며 해외 자본을 획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뉴스는 또 “북한은 주한미군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이번에도 했다.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군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주적이 되지, 먼 나라가 주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은 주적이 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처럼 낮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핵맹이라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으며 철천지 원수로 선전하던 미국은 더 이상 북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아

닐 수 없다. 아무리 국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냉혹한 세상임을 감안해도 보통의 이해로는 따라갈 수 없는 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의욕의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전반적인 명운을 중국에 의존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아설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이해를 의아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국이 그렇게 되도록 방관했느냐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내용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북한이 변하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이 위험할 수도 있는 시소계임을 자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라기는 이런 변화 속에서 더는 한반도의 위기가 확산되고 불확실한 미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세상이 변하되 좀더 살기 좋은 시대와 관계가 되기를 빌어본다. 이는 아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귀하는 것이리라.

hanmac@cmi153.org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됨' 주제로 제 67회 국가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성료

제 67회 국가기도의 날 연합기도회가 '평안의 때는 쫓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주제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3일 오후 7시30분에 성황리에 열렸다.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와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안병권 목사)가 공동주관하고 OC교협,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성시화운동본부, 순무브먼트, HYM, CMFM, 미스바기도운동 공동주최로 열린 기도회는 강순영 목사 사회와 주님세운교회 카리스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남상국 목사(OC목사회 회장)가 대표기도 했으며 안선신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가 성경봉독을, 목사장로부부합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이어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와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예레미야 5:1절과 33:2-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예배에 이어 국가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제 1부는 미국을 위한 기도, 이서 목사(OC교협회장)가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전해숙 목사(은혜한인교회), 박종술 목사(순무브먼트), 김철민 장로(CMF), 김관중 목사(새창조교회), 유수연 교육위원(ABC통합교육구), 배승언 목사(토랜스조은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미국을 위한 기도 제목은 회개와 부흥, 가정과 교회, 교육과 문화, 사



제67회 국가기도의날 연합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회정의 등이었다.

2부는 미국 지도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가 통성기도를 인도한 가운데 하성진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남상국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샘 신 목사(남가주목사회장), 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 데이 리 자매(USC 총학생회장)가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과 연방대법관, 상하원의원과 군 지도자 등을 위해 대표기도했다.

3부는 한국을 위한 기도도 엄구서 목사(목사장로부부합창단 단장)가 통성기도를 인도했으며,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교회), 오경환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 이호민 목사(가디나선교회), 김영환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더글라스김 목사(HYM) 등이 한국 대통령과 정부, 안보와 통일, 한국 교회와 목회자, 북한의 성도들과 예배의 자유,

부흥과 선교, 경제 발전 등을 위해 대표기도했다.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이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1988년부터는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개최일이 확정됐다. 올해에도 연방의회를 비롯해 미 전역 4만7천여 곳에서 일제히 기도회가 열렸다.

특별히 이번 기도의 날은 청년사역자들이 기도인도자로 나선 것이 눈에 띄었다.

배승언 목사, 남상권 목사, 김영환 목사, 하성진 목사, 더글러스김 목사는 청년사역자들이었으며 데이 리 자매는 대학생이다. 또한 유수연 교육위원은 차세대를 담당하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C&M 한인총회 제 35차 연례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담대하게 나아가자” C&M 한인총회 제 35차 연례총회

C&M 한인총회(감독 백한영 목사) 제 35차 연례총회가 “담대하게 나아가자(히10:35)” 주제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주 웨이드빌 웨이스교회(담임 원호 목사)에서 열렸다.

백한영 감독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가족(Christ Centered Acts 1:8 Family)”이 요즘 C&M 전체의 표어라고 소개하고, “C&M 한인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서북부지역회가 주관한 총회 첫 날에는 환영 만찬과 개회예배, 둘째 날에는 사역 보고와 회무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과 기도 집회가 열렸다. 셋째 날에는 세미나와 휴식, 넷째 날에는 세미나와 지역회 대항 족구대회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과 말씀 집회, 다섯째 날 폐회 예배로 마쳤다.

C&M 총재인 존 스펀보 목사가 참석해 첫날 개회예배에서 'Move Forward with Confidence'(히 10:32-3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둘째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C&M 사역을 알렸고, 셋째 날에는 “예수 중심적인 영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넷째 날에는 김형균 목사가 “복음과 이민교회 사역” 주제로 세미

나와 워크숍을 인도했다. 지역회 대항 족구 대회에서는 각 지역 사모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동북부지역회가 우승, 서북부지역회가 준우승을 했다.

이번 총회 임원 선거에서 선출된 새 임원 명단은 △서기 김형길 목사 △부서기 김바울 목사 △회계 강남수 목사 △부회계 김충겸 목사. △감사에는 원호 목사와 김남일 장로가 선출됐다.

선교회 개념으로 출발한 C&M은 지난 1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다시 오시는 왕으로 높이는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해오고 있으며 선교사의 70%가 10/40장에서 사역하고 있다.

미국에는 2천 교회 50만 성도가 37개의 언어로 예배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2만3천 교회에서 630만 성도가 180개의 언어로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C&M 한인총회는 북부 뉴저지의 리지필드 파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에 7개 지역회, 90개 교회, 180명의 교역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월 8일에는 한인총회에 소속됐던 한국의 교회들과 교역자들이 한국에 C&M 교단인 ACK(Alliance Church in Korea)을 설립해 창립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OC교협이사회 임원들이 기도모임후 기념촬영했다

“평화통일, 지역사회 안정, 교계연합...” OC교협 이사회 임원들 기도모임

OC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회(이사장 민승기 목사)는 지난 26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시기에 안락기도원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이민사회를 대표하는 영적기관으로서 교회와 이민생활과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모임을 가졌다.

이사장 민승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 양금호 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정영수 목사가 ‘예수를 쫓으라’(눅5:11)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를 쫓았다. 우리 조국을 향한 주님의 소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각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자신들도 아브라함과 베드로처럼 즉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예배는 박학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윤성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도모임에서는 이사회 임원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26주년 4.29를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교회의 단합을 위하여 등의 제목으로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OC교협이사회)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법인 ICMM은 선교지 및 신학교 Laptop발송 사역 설명회를 가졌다

ICMM, 랩탑 발송 사역 설명회 선교지 및 신학교에 컴퓨터 보내기 호소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법인 ICMM(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 제임스 구 교수)는 선교지 및 신학교 사역에 필요한 랩탑(Laptop) 발송을 후원하는 사역 설명회를 4일 오후 1시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라이브러리에서 가졌다. 제임스 구 교수는 “랩탑 발송에 대한 아이디어는 GMAN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교지 레고보내기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선교지와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 중에 랩탑 컴퓨

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랩탑 컴퓨터를 보내면 선교지의 사역에 보탬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구 교수는 “선교지에 랩탑 필요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랩탑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게 됐다”며 “성도들과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선교지에 랩탑 발송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선교지에 랩탑 보내기 프로젝트는 미국 내 각 가정에서는 쓸만 하지만, 계속 사용하기는 좀 부족해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랩탑들을 조기와 사려서 선교지 및 신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체 역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없어진 제품을 선교지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또한 마음은 있지만 랩탑이 없는 분들은 후원금(1대당 50달러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랩탑을 제공하거나 발송 후원을 신청하는 후원자들에게 세금보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도네이션 영수증을 제공한다.

▲문의: (714)393-4593(center), icmm@churchhomepage.org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비영리단체사역 과목 신설 선교지 및 신학교에 컴퓨터 보내기 호소

금년에 월드미션대학교가 비영리단체사역 과목을 신설했다.

선교적 교회와 공적신학 개념의 출현으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가 커지면서 비영리단체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시기를 절감한 월드미션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세계 곳곳에서 수강이 가능한 본 강좌를 신설하고 선교적

교회의 개념, 사명과 사역의 이해와 비영리단체운영에 대한 이론과 실제, 교회 안과 밖에서 비영리단체를 통한 선교사역 감당과 비영리단체 사역을 위한 네트워킹을 형성하도록 했다.

강의 내용은 △NC101 비영리단체 사역의 선교적 이해와 실천(1학점) △NC102 모금 및 캠페인(1학점) △NC103 비영리단체 운영 및

홍보 마케팅(1학점) △NC104 국제개발사업(ODA)에 대한 이해와 실천/국제기구와 글로벌 NGO의 개요와 펀드(1학점) △NC105 기업의 사회공헌 및 비영리단체의 연계(1학점)이며 강사는 임진기 교수(휴먼앤휴먼 인터내셔널 사무총장/NC101),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NC101), 김민아 교수(Compassion Korea, Marketing and Engagement Impact 차장/NC102), 민준호 교수(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 팀장/Asia Pacific Fundraiser's Network 부의장/NC103), 임진호 교수(한국

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연구부장/한국국제협력단 KOICA 교육전문위원/NC104), 김도영 교수(한국비영리학회 이사/사회적기업학회 이사/승실사이버대 외래교수 NC105) 등이다. 개강은 6월 11일부터 10주간이며 접수마감은 6월 1일.

자세한 것은 http://www.wmu.edu (213)388-1000, admissions@wmu.edu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동부교계 기사판



필라교협 2018 복음화대회

필라델피아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도성 사관)가 주최하는 2018 복음화대회가 6월 1일(금)과 2일(토) 일 오후 8시, 3일(주)은 오후 6시에 개최된다. 목회자 세미나는 4일(월) 오전 10시부터 복음화대회 장소는 필라한인연합교회(담임 조진모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서울 분당에서 만나교회 담임 김경삼 목사. 한편 필라교협은 2일과 3일 오후 3시 필라제일장로교회(담임 강학구 목사)에서 교회음향 세미나를 갖는다. 강사는 김우진 집사(한국영성대학교수, 프리스사운드 대표)로 평창 올림픽 음향을 담당한 바 있다.

▲문의: (215)694-5007(회장), (718)799-6181(총무).

요한 웨슬리 회심기념 성화대회

요한웨슬리성화운동 미주본부(대표회장 박효성 감독)가 주최하는 요한 웨슬리 회심기념 성화대회가 11일(금)부터 12일(토) 저녁 7시30분, 13일(주) 저녁 5시에 티베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재덕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철한 감독, 양기성 목사. 13일에는 대표회장 취임식도 열린다.

▲문의: (201)952-6365

자녀교육 컨퍼런스

낮은올타리(대표 신상인 선교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는 뉴저지주와 뉴욕의 부모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주제로 자녀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5월 12일(토) 뉴저지 한무리교회(담임 박상돈 목사)에서, 6월 2일(토)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게 된다. 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컨퍼런스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관학교(Worldview School for Kids)가 동시에 열린다. 온라인등록 <https://goo.gl/forms/CeZRN7oq9Aauqvth1>

▲문의: (646)300-4790, woolltarius@gmail.com

패밀리터치 “필링 굿 클럽”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더 좋은 기분을 느끼고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링 굿 클럽(Feeling Good Club)” 프로그램을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 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한다. 참가비는 교재 포함 100달러이며 세미나와 그룹 치료가 함께 진행된다.

▲문의: (201)242-4422



아멘넷 15주년 기념집회에서 월드밀알선교회장단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다.

“이민 한인교회 오늘과 미래”

인터넷 기독교언론 아멘넷 15주년 기념집회

인터넷 기독교언론 아멘넷(대표 이종철 안수집사)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저녁 5시30분 기념 집회를 가졌다.

이종철 대표는 “지난 15년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준 교회와 개인들께 감사한다”며 “15주년을 위해 모아진 후원금은 이민 한인교회의 오늘과 미래에 포커스를 맞춘 기념책자 발행과 특별 프로그램 운영 및 한민교회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에베네셀선교회(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린 집회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1부 예배와 2부 집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2부는 이민호 뉴욕교협회장의 한인 이민교회를 위한 기도에 이어 정민철 목사(엠베스터컨퍼런스 설립자)와 김종훈 목사(해이한인장로회 전 총회장)가 맡았다.

정민철 목사는 “이민한인교회의 사명과 차세대”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미국내 한인 이민교회의 부흥이 무엇인가?”라며 “지난 50년간 2백만명의 한인들이 미국에 왔으며 90년대 중반 이민자의 70%가 교회에 출석했으나 현재는 20%로 급락했다”고 말하고 역사적으로 유렵교회와 미국교회의 실태를 설명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 받은 우리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교회(1세교회)와 안디옥교회(2세교회)처럼 뉴욕을 선교지로 삼고 힘을 모아 협력해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며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도전했다.

김종훈 목사는 “위기의 이민한인교회 우선순위”라는 제목의 강의

에서 “1903년부터 1965년까지, 65-2000년, 2000년 이후의 3단계로 나누고 2001년부터 찾아온 위기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 형태(대형물의 증가와 소기업의 쇠퇴)와 한국경제성장기에 따른 이민자 노령화, 2세들의 모교회 탈출” 등을 설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체면 문화와 버리고 아메리칸 드림도 버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위기에 대처하는 우선순위를 교회의 본질 회복에 두고 킥업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이민교회가 된다면 이사가서 말씀처럼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으로 남아 교회는 1세와 2세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엘피스선교단(대표 김경길 목사의 경배와 찬양후 허상희 목사가 기도하고 월드밀알선교협회장단(지휘 이다윗 목사)이 찬양했으며 설교는 허봉기 목사가 “대안공동체”(행2:43-47)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어 케리그마남성중앙단의 봉헌송과 봉헌기도 손성대 장로,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아멘넷은 순서지를 작은 책자로 만들어 ‘아멘넷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교회갱신과 개혁, 한인 교계 등에 대해서 아멘넷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만찬과 함께 “사랑하며 춤추라”(신양과지성사)라는 책을 증정했다. (유원정 기자)

K-팝 밴드 초청, 다민족대회 등 변화추구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

오는 7월 9일부터 시작되는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앞두고 1차 준비기도회가 4일 뉴욕대한국교회에서 열렸다.

예배후 준비진행과정 보고에서 회장 이만호 목사는 △교협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미자립교회 후원에 대해 미자립교회특별추진위원장으로 안창의 목사를 세우고 총무 양민석 목사를 비롯한 임원진을 구성했다고 밝히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돈 안쓰는 선거법 개정을 이번 총회부터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사모위로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목사는 △할렐루야대회에 대해 강사 이영훈 목사 초청배경과 대회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첫날은 1.5세와 2세가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K-팝 밴드 ‘라스트’를 초청하며 둘째 날은 장로연합회와 힘을 모아 다민족대회로 준비한다”며 “최선을 다해 변화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에서 회장 이만호 목사가 대회 진행을 설명하고 있다.

를 도모하며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 예배는 이광희 목사 인도로 기도 최예식 목사,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한재홍 목사, 특별통성기도(미국과 조국을 위하여-김정숙 목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김주열 장로, 할렐루야 2018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이재덕 목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김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기도의 힘”(예 8:21-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김의원 박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청교도와 성령’ ...J. 에드워즈 흔적 찾아

제8회 청교도복음연구회 정기세미나

청교도복음연구회(회장 김필식 목사)가 주최한 세미나가 지난 5일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튼제일교회 및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흔적이 남은 박물관, 에드워즈 일가가 묻혀있는 묘지 등을 둘러보며 열렸다.

‘청교도와 성령’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기성 목사(뉴저지 은혜와사랑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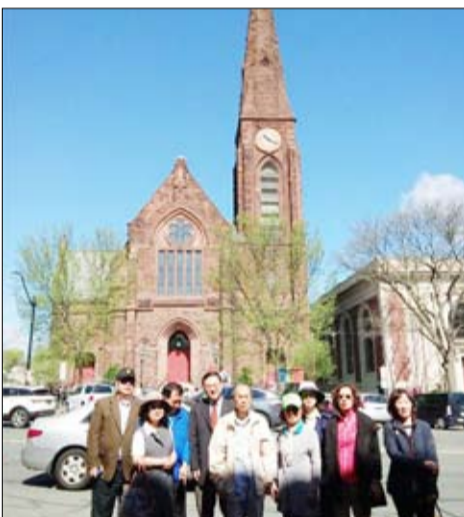
최기성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26-27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당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을 생각나게 하실 십자가”를 상기시키며 “특별히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새로운 심령, 즉 거룩한 양심과 그렇지 못한 양심에 대해 비교해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교했다.

2부 세미나에서 김필식 목사는 영국 청교도의 대표 계승자인 리처드 심스 목사의 주요 개념인 “중생과 회개의 의미”를 살피고 회개와 성령의 관계를 조망함에 있어 “회개란 성령의 사역이므로 한두 번 눈물 흘리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감정적인 기쁨은 유사회개에 불과하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전인적인 변화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종 목사는 존 오웬 목사의 “죄 죽임과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회심 이후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행위에 대해 조명했다.

김영옥 선교사(가정사역원장)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칼빈의 삼위일체로서 창조사역과 십자가의 구원사역과 구원을 보증하고 유지해 성화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성령의 본질적 존재성과 능력, 감화, 인격으로 일하시는 삼위로서의 위격을 그대로 따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성령관을 살피고 미국 제1차 대영적각성 주자의 한사람으로 당시 반부흥운동이 전개되며 성령에 대한 혼란에 대해 확실한 성령의 증거 5가지를 요한일서 4장에 입각해 제시, 부흥세력에 담담하는 현송과 봉헌기도 손성대 장로,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청교도복음연구회가 이동하는 중 매사추세츠주 지역에서 물려온 동성애자 페레이드와 부딪혔다. 동성애 축제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가족단위로 참여해 어린이와 애완동물까지 목이나 솜에 무지개로 디자인된 스카프나 옷을 입고 나왔으며, 만화영화 주인공이나 영웅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는 일반 문화와 섞여 진행돼 한층 우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톤다드 목사가 시무하다가 외손자에게 물려준 노스햄튼제일교회(일명 조나단에드워즈교회)를 배경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를 자아냈다.

청교도 연구자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짐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각심으로 동글게 스크립을 짜고 만세삼창을 부른 후 통성으로 대적기도를 했다.

한편 청교도복음연구회는 미국 청교도 400주년인 되는 2020년을 준비하며 2019년 5월 28일(메모리얼데이) 제9회 세미나를 1박2일 일정으로 ‘청교도와 성령’이란 주제로 워싱턴DC 성경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청교도복음연구회)

“성경의 통일성-하나님의 언약”

김의원 박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전 총신대학 총장 김의원 박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성경의 통일성-하나님의 언약”(눅22:19-20)이라는 주제로 조나단에드워즈아카데미(대표 정부홍 목사)가 주최했다.

김의원 박사는 2시간 20분 동안 참석자들에게 슬라이드를 프린트해 나눠주고 일사천리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점심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박사는 성경을 보는 방법으로 통시적 방법(시간적)과 동시적 방법(공간적)을 모두 사용할 것을 말하고 계시는 점진적 발전과 유기적 발전으로 안식,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가나안땅, 그리스도, 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안식(숨)에 대해서는 구원과 연계해 가나안 정착, 예수와 안식, 안식과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며 신약의 주일은 미래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조언약은 일반규례로 (1)안식 (2)결혼 (3)노동으로 문화명령(창1:26-28)과 구속사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명령과 대위임명령이 함께 언약명령이 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가족→민족→국가→

“현대는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며 “교협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여, 미래를 아시는 분이요,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목회하라”고 말했다.

2부는 총무 김희복 목사 사회로 회장 인사에 이어 이광희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은 6차에 걸친 준비기도회를 안내하고 자세한 것은 임원단과 협동총무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원주민선교에 대해 이재봉 목사가, 유년분과에 대해 최호섭 목사가, 이민자보호교회에 대해 조원태 목사가 각각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교회로 이어지는 언약공동체는 (1) 혈통과 세대 (2)선택의 원리로 나눠지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언약의 표징인 할렐(창17:9-14)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박사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등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설명했으며, 십계명 해석에 대해 그린 윌리엄스의 “소교리문답 강해서”를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김의원 박사는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보지 말라”며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보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전통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강하다. 틀을 깨지 마라. 신학교와 목양지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의원 목사는 뉴욕중부교회(현 뉴욕센트럴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귀국해 30여년을 교수로 사역하며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3년 전 은퇴하고 현재 워싱턴DC에 거주하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와 교육을 돕고 있다.

한편 5월 4일부터 6일까지 뉴욕 만나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창조 언약과 구속언약)” 주제로 김의원 박사 초청 부흥사경회를 열었다. (유원정 기자)

영적 분별력으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대하라!

《2면에서 계속》

타노스 역시 이러한 마블의 전형적인 초 영웅 구조에서 이헤된다. 그는 타이탄 행성의 유일한 생존자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타이탄 행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자, 타노스는 결심하게 된다. 전 은하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 50%를 죽여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명으로, 자신의 수양딸을 절벽 밑으로 밀어 죽게 하면서까지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점은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타노스는 철저히 다른 사람들의 희생 즉 폭력을 통해 강탈하거나 몰살시켜 세상을 구원(?)한다.

심지어 타노스는 셋째마네 동산에서 우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수양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모든 은하계의 생명체들 중 50%가 먼지로 사라진다. “다 이루었다”고 중얼거린다. 종의 형태로써 자신을 비우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달리, 타노스는 신의 형태로 폭력을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따라서 ‘라이프 웨이’는 오히려 불신자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바로 영화 안에 담겨진 ‘뒤바뀐

구원자’인 타노스의 캐릭터가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포커스언더퍼미리”가 이 영화를 위해 만든 크리스천 가정 가이드를 살펴보자(Family Guide for Avengers: Infinity War).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이 영화가 가진 폭력성과 신성 모독이 너무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한다(Avengers Infinity War EXPOSED as Anti-Christian Hollywood Propaganda).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극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포커스언더퍼미리”는 영화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영화를 보고, 집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토론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1-누가 당신의 마스터(Master)인가?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 맨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와 조우하게 된다. 가디언들은 이들은 타노스가 보낸 스파이더로 오해하고,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편임을 알고 나서, 닥터 스트레인지

는 “당신들이 섬기는 주인(마스터)가 누구냐?”고 묻는다. 이때 스타로드(가디언들의 수장)는 빈정대는 말투로, “예수라고 해야 되냐?”라고 응답하고,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결국 내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나 예수 대신 다른 우상을 말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가족끼리 이야기해보고 공유한다.

이외에, 2-어떤 보물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3-성령의 가치 등에 대해서 토론 제목들과 해당하는 성경 말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결론으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물고 오는 지구촌 인기 열풍은 아직까지는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2년 후에 개봉될, 후속편에 대한 기대 역시 너무나 뜨겁다. 타노스를 물리치고, 그가 가진 인피니티 스톤의 힘으로 먼지처럼 사라진 어벤져스들과 50%의 생명체들의 완벽한 부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주제...말씀과 기도 집중

제38회 HYM청년연합집회, 강사 강대형 목사

제 38회 HYM청년연합집회가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프레이어센터에서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청년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강대형 목사(수지 선한목자교회)는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3명 혹은 4명으로 짝을 이뤄 △이민 생활 속에 처한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도 가운데 성령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능력으로 깊은 곳에 주향한 사랑 믿음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란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했다. 사도행전 11:26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한 강대형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한 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내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머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갈2:20)이라 말했다.

강 목사는 “신앙의 침체가 오고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물러나서”라며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의 중심에 예수그리스도가 왕이 된 상

태다. 감옥이나 광야를 비롯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며 그럴 때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 목사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한사람 한 사람 안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나라 꿈을 꾸는 한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에 목말라하고 그 뜻대 향해 나아가는 한사람을 통해 주님께

(박준호 기자)



제38회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2018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본교 신학교 한인학위수여자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학위수여식

박사 41명, 석사 656명, 교육전문가 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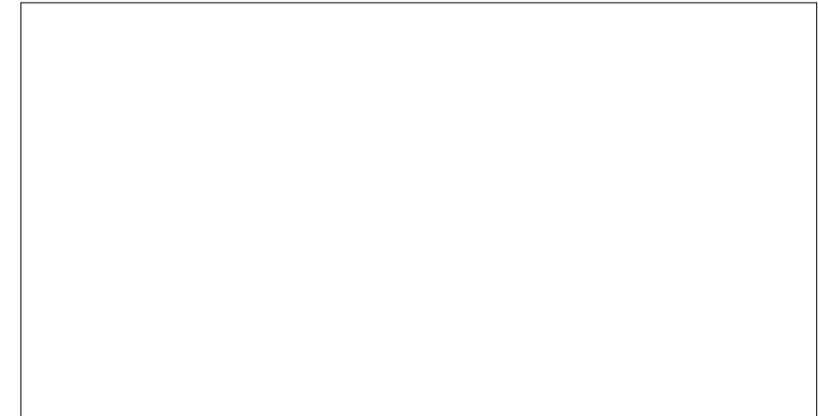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윌레스 박사) 2018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5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석박사 및 교육전문가 학위수여식은 간호학(1명), 교육리더십(5명), 신학(4명), 고급교육학(1명), 고급교육리더십(6명), 심리학(24명) 등 41명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656명이 석사학위를 그리고 17명이 교육전문가 학위를 수여받았다.

한인은 24명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는데 송희진 등 10명이 목회학석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경영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4명, 사회학석사 1명, 음악석사 2명, 상담학석사 4명, 간호학석사 1명, 심리학석사 1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6시에는 학부 졸업식이 열렸다.

(박준호 기자)



국제25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교회는 사도성 계승해야”

국제25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 강사 오정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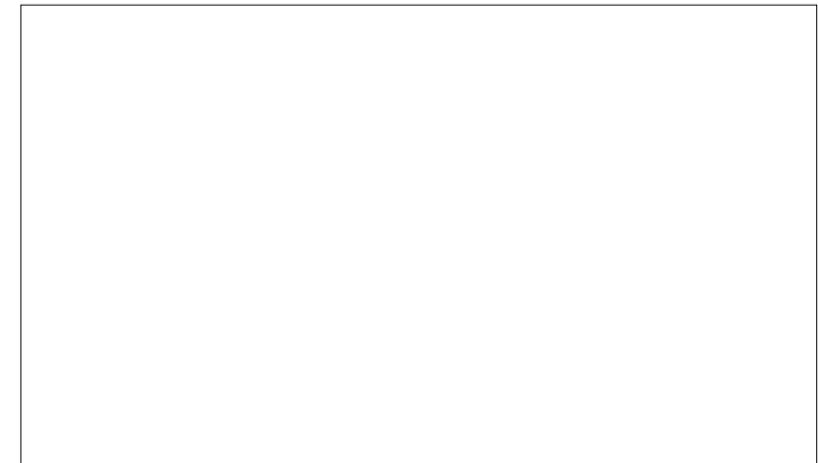
국제 25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4월 30일부터 5월 5일(토)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둘째 날 오전 교회론 C 강의는 서울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오정현 목사는 “말씀사역을 통해 세상에 보냄 받은 평신도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성숙하면 할수록 말씀을 먹는 수준도 달라진다.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성경적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며 교회는 사도성을 계승해야 한다”며 “사도성을 계승하려면 사도가 전해준 말씀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한사람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제자로 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할 것 없이 그대로 가야 한다. 교회론이 튼실히 자리 잡아 이민교회가 소망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은혜로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4월 29일 4시 -사진 앞 우측에서 세번째

남가주은혜로교회 이병현 담임목사 취임식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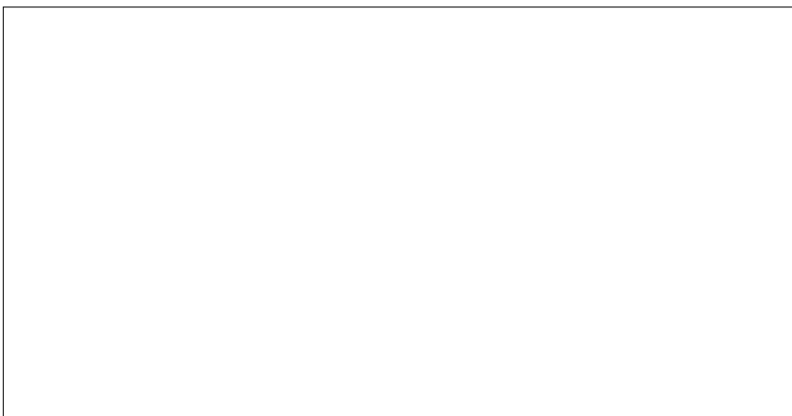
남가주은혜로교회(KECA)는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에 제 2대 담임목사로 이병현 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주관으로 열린 취임식 사회는 오서택 목사(북감찰장), 기도예 최은호 장로(부회장), 설교는 김종호 목사(지방회장)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라는 제목으로 했고 축도는 최승운 목사가 했다.

이병현 담임목사는 미국 육군 예비예비군목으로 영어권 사역도 잘 예비돼 있으며,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로부터 이전에 남가주은혜로교회 2대 목사로 취임하게 됐다.

이병현 목사는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아시안코랄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문화예술로 아시안 화합 계기 마련

아태 문화유산의 달 기념 아시안코랄페스티벌

아시안 코랄 페스티벌이 5일 오후 7시30분 아카데미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태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일본·필리핀·대만 커뮤니티가 연합해 개최하는 축제로 올해 역시 대만 커뮤니티 주최로 각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선보이며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은 라크마렘버 콰이어(지휘 윤임상 교수), 일본은 오렌지카운티 프렌드십 콰이어(지휘 케이코 다케시타), 필리핀은 필리핀 챔버싱어즈 LA(지휘 겔로 프란시스코) 그리고 대만에서는 리우 구에이 고등학교 합창단(지휘 천천첸)이 참가했다.

한국을 대표해 참가한 라크마 챔버 콰이어는 박지훈 작곡의 ‘미사 브레비스’(Missa Brevis)를 구성하는 4곡 중 ‘키리에’와 ‘글로리아’를 공연했으며 특별히 반딧불 미사 가 부제인 이 곡에 맞게 단원들이 소형라이트로 표현한 반딧불은 한국 전통의 리듬과 정서를 잘 반영했다.

또한 ‘고향의 봄’을 김준범 작곡가가 편곡한 여성 합창은 울동이 가미돼 공연됐다.

그동안 남가주 한인커뮤니티의 합창공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동적인 공연이 펼쳐진 것은 정적인 분위기로 구성됐었던 것을 탈피하

게 되는 시발점이 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조성은 작곡의 ‘못 잊어’로 김소월의 시를 노랫말로 하는 합창곡은 바리톤 장상근 씨의 솔로와 그 뒤를 잇는 아름다운 합창이 한국의 정서를 표현했으며 ‘동심초’는 김성태 작곡가가 편곡해 혼(Horn)솔로와 합창으로 ‘님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한국인의 정서로 풀어냈다.

일본대표로 참여한 OC프렌드십 콰이어의 공연은 마음을 울리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필리핀 대표로 참여한 필리핀 챔버싱어즈 LA는 아카펠라곡을 선보였다. 대만의 리우 구에이 고등학교 합창단의 무대는 10대들의 역동성이 돋보인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페스티벌은 플리프 양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모든 출연자들이 ‘America the Beautiful’을 부른 뒤 마쳤다.

이날 페스티벌은 각국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각국 참가팀들이 입장하기 전에 소개했으며, 연주회장에는 각 나라의 안내부스가 마련돼 각국 문화의 숨결을 접하게 됐다. 다만 한국의 부스를 담당하기로 했던 한국문화원측이 불참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설치되지 못한 것이 옥의 티로 남았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또감사선교교회 설립기념 부흥회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설립기념 부흥회를 17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박종순 목사(서울 총신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17일(금) 오후 7시30분, 18일(토) 오전 6시30분, 오후 7시, 20일(주) 1, 2부 예배.

▲문의: (323)225-9191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 부흥회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심창섭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부흥회를 ‘다음세대의 영적부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다니 김 선교사(예수세대운동)이며 일정은 18일(금) 오후 7시30분, 19일(토) 오전 10시, 오후 7시30분, 20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문의: (909)267-4862박재연 목사

선한목자교회 부흥성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부흥성회가 18일(금)부터 20일(주)까지 열린다. 강사는 신철범 목사(두바이한인교회 담임).

▲문의: (909)591-6500

웨스트힐장로교회 ‘간증과 함께...’ 집회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는 ‘간증과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금요일 밤에’ 집회를 11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강사는 박영환 목사(페루선교사).

▲문의: (818)884-2391

토렌스조은교회 간증집회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원더걸스 선에 자매 간증 집회를 16일(수) 오후 8시에 갖는다.

▲문의: (310)370-5500

한인기독교상담소 무료방문 세미나

한인기독교상담소는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Mental Health and Wellbeing mini Grant를 받음으로 5월 한달 동안 LA카운티 내 교회나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세미나를 무료로 제공한다. 주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기술, 분노조절, 우울, 대인관계 기술, 가정폭력, 약물, 도박, 인터넷 중독 등이다. 비용은 무료.

▲문의: (213)738-6930, Counseling119@gmail.com

장학생 선발 공고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Ann lee)는 미래의 한인 비즈니스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한인 장학생을 선발한다. 어카운팅, 비즈니스, 에코노믹 전공/부전공 하는 풀타임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이력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사이트(http://kacpa.org/scholarship/)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문의: www.kacpa.org

신약성경통독집회

LA지역 헬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목사)가 오는 28일(월) 오전 8시, 1일 신약성경통독집회를 개최한다. 참가비 무료. 참가대상은 교역자, 선교사, 평신도 학생 등이다.

▲문의: (213)268-3589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PCUSA 소속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정규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PCUSA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이 가능한 자로 미국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고 이민교회 5년 이상 담임 혹은 부목사 목회경험자를 원한다. 구비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목회철학과 비전, 최근 설교 2회분, 졸업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추천서 3통이 필요하고 마감은 7월 16일까지. 접수는 이메일 thejangsfam@hotmail.com 또는 3500 E. Harmon Ave. Las Vegas, NV 89121

문의: (702)408-2774

한미연합회, 지역구 주민투표 참여 독려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신설되면 한인커뮤니티에 영향력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가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신설 주민투표/우편투표 등록 방법과 월셔/코리아타운 지정 부근에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는 커뮤니티 분들의 투표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7일 가졌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LA시에 5가부터 멜로즈. 웨스턴부터 벌몬까지 방글라데시타운으로 신청했고 500명이 넘어서 통과됐다. 그래서 주민투표만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회는 한인 커뮤니티가 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 한인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민투표에 지역 거주자나 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에게 투표참여권을 드려야 한다.

한미연합회 이사진들이 마련한 100명의 한미연합 회원권(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을 무료로 제공하며 그 회원권을 증명 받아 투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 사무국장은 “사전등록 작업을 한미연합회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한미연합회로 문의하기 바란다”라며, “이번 제안은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남북으로는 멜로즈에서 5가, 동서로는 웨스턴에서 벌몬까지 자신들의 관할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의 실제 구성 구간은 3가의 알렉산드리아가에서 뉴햄프셔까지 약 4블럭이다.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가 신설되면 한인들이 지배적인 지역에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365-5999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예장합동 “복음적 통일에 섬김과 희생 다할 것”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단·통일운동단체 논의 활기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한국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현 목사)도 ‘통일선언’을 발표하며 남북 교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장합동은 지난 1일 독일 통일 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2018년 총회 베를린 통일 선언’을 발표했다. 예장합동 총회 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 선언을 통해 총회가 ‘남북 교류 및 대북지원’ ‘다음세대 통일교육’ ‘북한교회 재건운동’ 등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아울러 원활하고 투명한

대북지원을 위해 통일부 산하 대북 지원단체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통일기금 조성 및 통일캠페인 진행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승희 부총회장은 “남북교류 물꼬가 트인 만큼 (통일)기금 적립 활성화를 위한 교단 차원의 운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언문 발표 이후 베를린 장벽 붕괴에 큰 영향을 끼친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교회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전계현 총회장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걸음을 내딛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기 위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셨듯 예장합동도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섬김과 희생을 다하는 교단이 되겠다”고 했다.

기독교계 통일운동단체인 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도 지난 3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한국교회 통일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화통일연대는 제언을 통해 “대북 교류에 있어서 한국교회와 교계 대북지원단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앞으로 새롭게 재기될 대북지원사업은 통일선교

의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교회 통일선교 전략 수립과 정책연대를 논의하기 위해 일타회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7·4 남북공동선언에서 4·27 관문점선언까지 남북 합의를 범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 등을 향해서는 “미군철수 논의를 평화협정 체결과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988년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에도 주한미군 철수가 논쟁거리가 돼 의미가 퇴색됐다”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북·일 수교가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사회를 또다시 편 가르기 하는 논쟁(적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론과 연구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피차간 관점과 주장이 다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일한국이 됐을 때 북한을 선점하기 위한 과열 경쟁을 펼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같이 설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오일환 주빌리 상임위원은 “오늘이 지리는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진영 논리에서 탈피한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이 만남이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교회 재건, 북한인권 문제 등 통일선교 사업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역시 통일선교운동 연합에 있어서 토

기도해야 한다”며 “열린 생각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광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개 단체 소속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통일선교 방안을 제안했다. 평화통일연대 상임운영위원 이근복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은 “기독교 단체와 교단, 교회연합기구가 더불어 통일선교를 하려면 무엇보다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며 “통일 후 사회 통합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통일에 관한 한국교회 입장을 정해 국가정책을 견인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북한 인권 및 기독교적 통일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북한 교류·개발협력 사업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역시 통일선교운동 연합에 있어서 토

심점으로 만들어 가자”는 내용도 담는다.

평양송실 재건 사업은 전국 교회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1200개 거점 교회를 선정해 발표한다. 또 이들 교회 중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대표하는 16개 교회를 별도로 선정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송실대를 빛낸 동문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주최 측은 목회자, 선교사, 교육자, 통일사역자, 디아코니아 5개 분야에서 헌신한 동문들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한다.

조성기 송목회 회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송실대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대학인 만큼 기독교 동문들이 다가올 통일시대에 발 빠르게 대

응하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선언문 발표를 기점으로 송실대와 동문 모두가 통일한국을 세우는 데 일조하면서 평양송실을 재건하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송실대는 1897년 10월 평양에서 미국복장로교 소속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설립했다.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로 일제가 심하게 압박하자 1938년 자진 폐교한 뒤 1954년 서울 영락교회에서 재건했다. 송실대는 2014년 통일부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신설했으며, 2015년엔 ‘통일 한국세움재단’을 설립해 통일 특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 여성 신도 10여명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는다. 신도수가 13만명에 달하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목사’ 지위와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다. 해당 교회와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예장교신 등 한국의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만 6명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씨

었다”며 “신성모독 수준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queer)신학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마저 보인다”고 개탄했다.

발제자들은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 등이 표현·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며 신앙·양심·사상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반성경적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에 동성애가 등장하는 이유는 서구사회에서 동성애자를 혁명도구로 삼는 게 효과적이라는 검증된 결과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민주노총이 동성애 인권을 앞세워 퀴어축제에 참석하고 (동성애 논리 확산에) 앞장서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 인권 논리의 정치투쟁 속에는 무서운 해체주의가 숨어있다”면서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으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가정과 교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선 미국처

“한국교회 건강과 성숙 모색…42년간 함께 걸어”

월간목회 지령 500호-발행인 박종구 목사에게 듣다

월간목회가 500호를 발행했다. 1976년 9월호부터 지난 4월호까지 발행해 42년째다. 그동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회 정보와 자료를 목회자들에게 제공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여성 안수 가능한가’ 등 교계의 다양한 이슈도 다뤘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월간목회 발행인 박종구(77)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자부했다.

월간목회 창간 당시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였다. 박 목사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교회가 하루에 6개씩 세워졌다고 했다. 하지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일한국이 됐을 때 북한을 선점하기 위한 과열 경쟁을 펼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같이 설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오일환 주빌리 상임위원은 “오늘이 지리는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진영 논리에서 탈피한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이 만남이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교회 재건, 북한인권 문제 등 통일선교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간목회 첫 호는 6000부를 찍었다. 금세 다 나가 1만여 부를 더 찍었다. 그만큼 목회 정보와 자료가 절실할 때였다. 월간목회는 성장보다 성숙을 강조해왔다. 한국교회가 모두 ‘성장’ ‘성장’할 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숙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크로스웨이 성경연구원을 세웠고, 성경 공부 시리즈 6권을 만들었다. 33년 서울 세미나 100회를 열었다. 목회자 2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재정은 창간 때부터 적자였다. 그나마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시리즈가 인기를 얻어 월간목회의 버팀목이 됐다. 월간목회 산하 신망에출판사가 ‘사랑의 원자탄’ 등을 펴내 월간목회를 도왔다. 하지만 월간목회 원고료는 모두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료는 정신노동의 대가로 드리는 게 예이라고 했다.

실제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필진 부족으로 힘들었다. “이전에는 필진 자체가 없었고 지금은 지식은 많고 변화는 큰데 여기에 어우러질 필자가 없어요. 목회지는 너무 바쁘고 신학자는 전공이란 동굴에 스스로 유배돼 있어요.” 그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과 연결을 이해하고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춘 이가 극히 적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목사는 “그동안 곁ող아 한번도 없었다. 공론의 길을 걸어왔다”며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감사했다. 목회자 서가에 월간목회가 꽂혀 있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를 꿈꾼다. 성서를 보고 듣고 만지며 생각할 수 있는 성서 체험관, 세계 교회 성장을 이끈 한국교회의 목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목회 박물관을 세우고 싶다고 했다.

교계 원로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알곡을 거두는 타작마당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보통 양적 팽창 이후 쇠퇴기가 옵니다. 한국교회가 현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면 세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가 돼야 합니다. 나에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 목사는 “이것이 난해하고 불확실한 시대의 정답”이라고 했다.

‘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폐지

충남 계룡市도 충남·충북 증평군 이어

충청남도와 충북 증평군에 이어 충남 계룡시에서도 ‘나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계룡시의회는 30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병학 계룡바른인권대책위원장은 1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동성혼 옹호교육 등 좌파 시민운동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나쁜’ 인권교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시의원들을 설득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제정된 계룡시 인권조례는 제2조에서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 존엄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 인권위원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에 등을 성적지향으로,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병역회피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두둔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126개 시민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고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제정된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을 강요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간 조화를 와해시켰다”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도 성폭행’ 이재록 구속

“증거인멸, 도주우려 인정” 영장 발부

‘대형 교회 목사’를 자처하며 수십년간 여러 명의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5)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연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5분쯤 “범죄 혐의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날 26일과 28일에 각각 14시간, 12시간에 걸쳐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

동성애 인권 정치투쟁 속엔

‘무서운 해체주의’ 숨어있다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교수)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은누리교회에서 ‘젠더리즘, 네오마르크시즘, 트랜스 페미니즘과 기독교’를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갖고 생물학적 성(sex)과 남녀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강조하는 젠더(gender)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김성원 이사장은 기독교학부 교수는 “젠더이데올로기는 여성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소외당하다 보니 성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면서 “문제는 여기에 동성애, 인공자궁을 통한 출산, 여성우월주의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성해방 페미니즘의 최선봉에는 미국 젠더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가 있는데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면서 “그러나 버틀러의 극단

적 주장과 달리 남자와 여자의 성은 창조질서와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결정돼 있으며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미세조정의 원리에 따라 역사적·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뤄왔다”며 “인공자궁을 통한 출산,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스트 페미니즘, 포스트젠더주의는 가정마저 해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혜원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는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반(反)동성애 움직임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동역하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문제는 동성애 사안을 놓고 분열되는 신학계”라고 꼬집었다.

곽 대표는 “상당수 신학자는 동성애 옹호세력에 점령당한 대학 총학 생회의 눈치를 보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시류에 편승하고

한반도 평화와 희망나눔 대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 60주년 다양한 기념행사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회설립 60주년을 맞아 ‘성령님과 동행한 고난과 영광의 60년’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주 행사는 오는 16-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선 ‘교회창립 6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이 개최된다. CGI(Church Growth International, 국제교회성장연구원)에 속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1500명과 중화권 기독교 지도자 4000명, 선교사 670여명 등 65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다. 예배는 제27차 CGI대회

및 제30회 아시아방한성회, 제44회 선교대회 개막식으로 함께 열린다. 오후 7시엔 대학청년교 주회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미션 릴레이’라는 주제로 청년 및 청소년 1만명이 참석해 복음의 에너지를 분출한다.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선 아시아 성도 방한성회 만찬이 열린다.

17일엔 ‘교회창립 60주년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오전 9시부터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강연이 있으며, 중국어권과 영어권으로 나뉘어 트랙강의가 진행된다. 저녁에는 교회학교 주회 ‘파워스쿨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75분간 공연 형태로 진행된다. 롯데호텔서울에

선 VIP 초청 리더십 만찬이 예정돼 있다.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8일 오전 9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8 한반도 평화와 희망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다. 6만 2000여명이 참석하는 대회에는 조목사와 이영훈 담임목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자문인 폴라 화이트(뉴데스티니 크리스천 센터) 목사, 미국 ‘타임’지의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던 윌프레도 초코 데 헤수스(뉴라이프 커버넌트 미니스트리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저녁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서울 찬양 콘서트 및 미스바 기도회’가 열린다.

교회는 60주년 기념 전시회와 오라토리요 공연, 60주년사 출판기념회 등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교토소 선교칼럼 (42)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육, TPPM대표

세례를 받기 위한 재소자들

교토소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때면 큰 기쁨을 느낍니다. 특별히 잘못된 신을 믿던 재소자가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소자들 중에 자신은 온갖 종류의 다양한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신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중, 키가 큰 재소자인 마이클은 영적인 혼동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중범죄자 방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는데 다양한 신에 대해 알고자 그런 책들을 찾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토소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다양한 신을 믿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마이클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전과 같이 영적인 혼동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평온을 찾았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기독교인이신 어머니께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양한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루이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거의 장님이라 잘 볼 수가 없어서 그가 항상 밑에 있는 침대를 사용하고 저는 위에 있는 침대에서 잠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다양신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잘 보지도 못하는 루이스가 저에게 '그 책을 나에게 주세요. 당신의 영적인 문제는 그런 잘못된 영적 서적들을 읽는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어떻게 내가 다양신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면서 그 책을 없애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석한 사람 중에서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님의 음성 에 순종해서 참석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물었고 세례를 받기 원하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중범죄자 예배에서는 마이클만 세례를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이클과 루이스 그리고 다른 재소자들까지 예배에 참석하러 여덟 사람 중에 여섯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토소의 재소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신을 믿는다고 선포했던 마이클이 그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고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변화된 재소자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토소 안에서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놀라며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토소 선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며 저의 믿음의 성장 또한 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방황하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재소자들을 기억하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교토소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추수를 하라고 보낸다." 사실 교토소 선교는 재소자들이 직접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토소 사역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3:6-9).

마이클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저와 문서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시며 후원하시는 여러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재소자들에게 교토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통일선교 기도소식

드디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수식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입니다. 그동안 휴전상태의 한반도에서 계속된 긴장과 충돌은 이제 더 이상 전장이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DMZ 평화지역과 NLL 평화수역 결정,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과 철도 및 도로 건설 추진,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출전 등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도 소망하던 기다렸던 민족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이 역사적인 선언을 우리 한민족과 세계는 환영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우려했던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고 대부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한 정상들의 합의 선언일 뿐,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진정성과 향후 구체적인 진행을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의 모습을 축하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압박을 하며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담이 진행된 것은 불과 2017년 말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미국의 철저하고 단호한 제재와 중국의 동향,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와 중재노력이 북한 김정일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구한 성도들의 기도, 복음을 위해 피 흘리며 죽었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작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화해와 통일의 본격적인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한반도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외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5월말 정도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일리가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여러 모습들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잡고 환영하며 북한과 남한 땅을 함께 건너는 모습, 포옹을 하며 인사하는 모습. 저녁 만찬장에서 두 정상 아내들이 함께 다정한 대화를 하는 모습. 한 어린이가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고향의 봄' 노래를 들으며 활짝 웃는 모습.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 두 정상 아내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이런 장면들은 연출일 수 있지만,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껴진 감동이 상처의 치유, 민족의 하나됨을 만들며 참된 평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한민족의 하나됨을 향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된 일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나가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 곳으로 가네...'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분별하여 그 바람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한민족 교회가 기도하며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곳으로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인간적 판단과 능력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며 헌신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살롬의 나라를 향해 한민족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자유와 기쁨과 회복의 주빌리 희년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족의 상황에 대해 걱정 의심 두려움 비판의 소리들도 있고, 또한 격려와 희망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에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맡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골방에서만 아니라,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각 지역마다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연합기도회를 만들고, 함께 성령 안에서 간절히 마음 합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IM(North Korea Inland Mission) 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prblessn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일합동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 521-0991, Fax: (714) 772-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 www.thk.org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 913-4499, Fax: (323) 913-4494 1750 N. Edgemont St., Brea, CA 9260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영양)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 227-1400 / Fax: (323) 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배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562) 691-7101, (F) (213) 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0:00 말뚝목장(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9:00 토요일학교: 오전 6:30 Tel: (62) 691-0691, (F) (562) 691-0698 Fax: (323) 665-0046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949) 854-2779 / Fax: (213) 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org/s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어권 (중소:KDC, 킹덤드림센터)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9:15, 11:3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 생 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 학교: 오전 9:30 주일 학교: 오전 9:30 Tel: (310) 719-2244, Fax: (310) 719-2229 15411 N. Figueroa St., La Brea, CA 90248 www.dk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 559-7728 (연락 팩스 송출), Tel: (213) 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re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www.youngnack.com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한일합동)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mpcia.org Tel: (213) 381-2202, Fax: (213) 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금요예배: 오후 8:00 새 생 기도회: 오전 5:45(월-토) 토요일예배: 오전 6:00(토) Tel: (310) 749-4756 2515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전 2:00 성인영양예배: 오후 7:15, 11:30 주일 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침/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금 예배: 오후 7:3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 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www.lagum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기도회: 저녁 5:30(월-토) Tel: (213) 745-9191 (CH), 사별(818) 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 245-4090 Fax: (213) 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 857-5425 / Fax: (949) 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 384-7274, Fax: (213) 384-8638 3435 Wilshire Blvd., #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www.gracemc.com Tel: (714) 446-8280, Fax: (714) 446-8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 생 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Fax: (310) 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Fax: (213) 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j.org	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 646-2929 Fax: (714) 646-364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수요일 학교: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w.com / e-mail: pastor@aconestonew.com Tel: (310) 530-4040 (CH), Fax: (310) 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텐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어)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어) 청년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GMS브리질신학교 사역에서 본 번역과 갱신(3)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GMS신학대학 학장)

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가져온 하나님의 성회 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

지역적인 문화와 상황 속에는 해방신학이 민중들과 맞을 것 같은데 진정 교회의 변화와 갱신은 하나님의 성회가 받아들인 정령주의와 신은사주의 운동과 변형신학이 교회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면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 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가져온 하나님성회 및 오순절계 대형교회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1. 하나님의 성회(Igreja Assembria Deus)

900만 이상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 “브라

만큼 실력을 갖추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했으며 마침내 그들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오늘날 브라질 최대의 교단인 “하나님의성회”의 시작이며 씩이었던 것이다(“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피터와그너).

2. 대형교회들

현재는 그 씩이 자라 브라질 개신교를 대표하고 있으며 다혈질적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개신교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오순절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는 브라질 Igreja Assembria Deus(하나님의성회), Igreja Universal do Reino de Deus(우주적인 하

(Exorcism)의식을 강조한다. 이는 브라질인 전체에 미치고 있는 아프로-브라질 종교의 영향아래(천주교, 개신교, 기타 모든 종교인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이라 한다.

또 한 가지 지적은 거의 매일 드러지는 각종 예배에서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한다. 정부, 언론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교 단체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과 미디어의 힘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언론 플레이가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유니베살(Universal)교회의 급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그 해답은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가난하고 소외된 도시의 하층민들을 잘 보듬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니베살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대한 총체적인 배려를 통해 희망의 근거지를 “저 세상”이 아닌 “바로 지금 이곳에” 둘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16세기부터 정치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왔던 브라질의 카톨릭교회와 독재를 일삼았던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하층민과 도시빈민을 방치해왔기 때문에 유니베살교회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줌으로 교회는 성장하

오순절 대형교회들, 도시빈민 상대 급성장 경제력 축적 치유은사 통해 교인들의 영육 간 고통 제거에 큰 관심

질 하나님의성회”가 창설된 것은 1910년이다. 유럽의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군나 빙그렌”과 “다니엘 베르그”는 해외 선교사로서 꿈을 키워왔다. 1909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사우스 밴드시의 한 기도교회 제 모임에서 두 사람은 파라(Para)로 가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예언의 은사).

파라(Para)? 그들은 그런 이름의 장소를 결코 들어 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국립 도서관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본 뒤에야 “파라”라고 부르는 장소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의 한 주 이름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당장 브라질로 갈 방도를 찾지 못하고 기도 하던 중 뉴욕의 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찾았다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예언의 은사).

그들은 밤 기차로 뉴욕에 갈 수 있을 정도의 푼돈만 가지고 뉴욕을 향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은 그들에게 “파라”주 수도인 “벨렝”까지 갈 수 있는 수송기의 3등간 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피곤한 상태로 브라질의 파라 주에 도착한 것이 1910년의 일이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축 늘어져 앞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한 감리교 선교사에게 인도하셨으며, 그 선교사는 그들을 한 친절한 침례교 목사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목사는 그들에게 교회 뒷편에 있는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포르투갈어로 설교할 수 있을

나님의왕국교회), IGREJA Internacional da Graca de DEUS(국제하나님은혜교회), Igreja de DEUS Sociedade Missionaria MUNDIAL(세계선교교회) IGREJA Pentecostal DEUS E AMOR(하나님사랑교회), Congregacao Crista(그리스도인들의 모임), Comunidade da Graca(은혜의 공동체) 등이다.

성장하는 대형교회 중 얼마전 솔로몬 성전을 세운 Igreja Universal do Reino de Deus(우주적인 하나님의왕국교회) 성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비슷한 모양으로 사회 속에 비추어져 가고 있기에 오순절계 대형교회들을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된다고 본다.

우주적인 하나님의왕국교회(Igreja Universal do Reino de Deus)는 1977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시작하였고 창시자는 에디르 마사도(Edir Macedo)이다. 이 교회는 브라질의 하류층 도시빈민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라틴아메리카 계열의 이민공동체에서 급속도로 교회성장을 이루고 있다.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신문사, 은행, 신용회사, 레코드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재벌이다

교인 수는 6백만 명 정도이며 약 85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교회성장의 원인은 치유은사를 통해 교인들이 겪고 있는 영육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데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질병과 근심의 원인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귀

게 된 것이다.

그밖에 IGREJA Internacional da Graca de DEUS는 소아리스 목사가 이끄는 대형교회로서 소아리스 목사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부흥사이다. 영적원리를 강론하며 사탄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고 과감하게 명령한다. 또 Igreja de DEUS Sociedade Missionaria MUNDIAL은 브라질 27개 주와 세계 175개국에 교회를 설립한 브라질에서 최강능력을 나타내는 전도자 교단이다.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대형집회에서 나타나는 그의 대중성, 하류층 언어, 치병, 축사, 변영의 기적 등을 강조한다.

IGREJA Pentecostal DEUS E AMOR는 침례선교사 미란다가 세운 교회로 쌍파울로 중심에 교회가 있다. 신유의 역사로 인해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온다. 라디오 방송으로 선교를 하면서 한번에 4천명 이상 세례를 주기도 한다. 그 밖에도 Congregacao Crista(그리스도인들의 모임), Comunidade da Graca(은혜의 공동체) 교회들이 도시빈민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을 내고 있으나 대부분이 유니베살(하나님의 왕국교회)처럼 상당히 변질되어 있고 돈 문제로 시끄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에서 사역하는 신학교를 비롯한 목회자와 선교사는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kangungchuel@gmail.com

선교 펴기

스와지랜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3:5, 6).

지난 며칠간 생김 일들을 보며, 이것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핵으로 미사일로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북한정권의 모습이 맞나 라고 생각하게 하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모습을 보이게 했나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지난 부활절기간을 전후해서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목사축)가 대규모 인원으로 이곳 스와지를 방문하여 국왕과 정부 관료들을 만나고 자기들이 지원, 건축하기로 한 국제유스센터를 적극 홍보하며, 교사들과 젊은 대학생들을 “mind” 교육이라는 주제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목표로 하는 두 가지 사역 중의 하나인 의대개설 문제는 이번에 기독교대학교 측이 정부 측과 새로운 MOA를 맺었고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개선포와 변화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의대개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신 분들(우대들에게 함께 하고 요청하신 분들)이 곧 스와지를 방문하여 실질적 상황들을 알아보기로 하셨기에 그때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 중에는 2015년 초창기에 두 번 씩이나 방문하여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을 돕고 자문을 준 차민섭 과장님(소화기내과)이 일주일간 다시 방문하여 내시경 및 심에코 등을 시행하며 환자들의 진료와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불치의 여건에서 시간을 내 주셨고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도움을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4월 말인 지난주에는 충남대병원 정일영 교수님(재활의학과)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을 다시 방문하여 주셔서 정부병원들과 스와코에서 근골격계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초음파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주사치료 등을 시행해 주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부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자주 관계되는 선생님들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국립의료원의 송영동 과장님(정형외과)의 3년째 계속되는 무릎치환술을 위한 팀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는 한국의 코렌텍과 LG

생명과학 두 회사의 적극적 기부와 후원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환자들에 치환술과 무릎연골 주사 치료가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혈관수술을 위한 동아의대 조광조 교수님(흉부외과), 충남의대 박재형 교수님(순환기내과), 성가톨릭병원의 김호동 과장님(소화기내과)의 방문이 5,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든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보건부와 협의하여 좀 더 적극적인 협력사역을 하기로 한 부분은 보건부와는 합의를 하였고, 우리들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래에서 위로 건의하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요원들에게도 설명하여 이들의 적극적 후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하반기에는 건축을 시작하고 가능하면 금년 중으로 완공하여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절하게 재정도 마련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월 중순에 1주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년으로 20주년을 맞은 대전의료선교교육훈련원의 초청으로 오랜 만에 특강도 할 수 있었고, 또 서울, 대전, 부산의 여러 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함께 해 주시길 약속들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부산에 있는 4개의 과대학(부산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인제의대) 선생님들께서 개인적 차원이기 하지만 함께 해 주셔서 더욱 그러합니다. 금년도 3월, 4월 두 달 동안에는 13분이 정기후원 또는 특별후원으로 새롭게 또는 다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와지랜드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sykim@cnu.ac.kr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5)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의 교육을 위한 성격적 통합 교육 이야기 (15)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토대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교육이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성경적 통합교육”의 가장 큰 전제인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미 “교육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교육자 혹은 교사” 라는

혹은 사회 역사적 상황) 등 모든 차원에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Bronfenbrenner, 1979).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교육의 장”은 브론펜브레너의 이론에서 보자면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야기에서의 교육의 장이란 교회(전체 교회, 교육부, 각각의 부서)들과 가정의 교육적 환경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들이 만들어 내는 교육적 환경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먼저 교회의 교육적 환경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해서는 과연 우리 교회들의 교육적 환경이 어떠한 부분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하기에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장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토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들 중 하나는 균형이 잡히

부의 장로가 마치 무슨 권력을 쥔 듯이 교육 행정의 절차를 쥐락펴락하며, 사역의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닌 행정을 위해 사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 모두 매우 비효율적일 뿐더러 좋은 사역의 열매를 위한 계획과 평가,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 발전 등은 기대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문제들은 일선 사역자들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의욕과 열정을 꺾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선 사역자들의 사기저하는 우리 다음세대를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들은 서둘러서 교육 행정적 시스템 또한 성경적으로, 즉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갖추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는

균형 잡힌 신학과 신앙 및 실천으로 ‘교육의 장’ 만들어내도록

성경적 교육행정시스템 갖추고 자교회 이기주의와 분쟁 막아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육의 장(Educational Context)”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장”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성경적 성격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이야기에서 교육의 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 탓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적 장소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공간적 물리적 장소라기보다는, 이는 교육이 일어나는 환경 혹은 상황 혹은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육의 장이란 어떤 한 사람의 교육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반 환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들어가면 러시아 출신의 저명한 미국 심리학자인 브론펜브레너가 그의 환경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에서 교육의 장의 체계와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5가지 체계들, 즉 미시체계(microsystem: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단체 혹은 그룹), 중간체계(mesosystem: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외부체계(exosystem: 외부 상황으로부터의 영향), 거시체계(macrosystem: 전체적 문화적 환경), 그리고 연대체계(chronosystem: 시간적 경과에 따른 차이, 변화적 상황,

지 않은 신학과 신앙 및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인교회들이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상관없이,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이면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지나치게 기복주의적인 경향을 띄거나, 힘겨운 현실의 삶을 직면하게 하기보다는 영적인 신비주의로 이끌고 가는 경우들은 매우 문제가 됩니다.

또한 교회들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무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자녀들의 균형 잡히고 통전적인 성장과 발달에 결코 선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스스로 성경적으로 건전한, 균형 잡힌 신학과 신앙을 세우고 실천하며 이를 전체 교회의 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의 경우 교육적 행정이 매우 엉성하고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회사나 기관도 아니고 그저 은혜롭게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모가 좀 되는 교회들의 경우 지나치게 행정체계를 강조하며 관료주의적인 교육행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교육

자교회 이기주의와 분열 및 분쟁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열방을 제자 삼고 서로를 내 몸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한인교회들의 경우 자기의 교회만 잘 되어야 한다고 여기거나 혹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갈등과 다툼을 불사하며, 결국엔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지대하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가 매일매일 다투다가 결국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교육적으로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비성경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성경적 통합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며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sinaichung@yahoo.com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부활신앙(고전15:12-15)찬154장

고린도교회는 헬라철학의 영향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때 사도들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첫째,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것으로 말합니다(13).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 곧, 중생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둘째,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증거의 수고가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증거의 수고가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인입니다. 교회는 부활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변화된 삶이 증거하고 그들의 순교적 삶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근거는 복음내용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화 부활의 첫 열매(고전15:16-20)찬157장

육체적 부활에 의심을 가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 “부활이 없다면...”이란 부정적인 방면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헛된 믿음이 됩니다(17). 온통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던진 그리스도인이라 그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째, 죄 가운데 있습니다(17). 동시에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없기에 죄의 결과대로 사망에 놓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속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기에 절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불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18-19).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부활신앙에 바친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최악의 불행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장래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 완전한 구원의 과정(고전15:21-24)찬158장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방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로 시작합니다(22-23). 영원히 잃은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회복된 사실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모든 죄가 처리된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합니다(23). 그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그와 연합한 자의 부활의 원천이 됩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기에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사기꾼이 됩니다. 셋째, 부활한 자들을 모두 아버지께 바쳤습니다(24). 이 부활로 구속의 완성이 증거되었고 부활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선물로 바쳐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단7:13)인 그리스도가 부활로 인해 모두 완전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참여한 우리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목 그리스도의 왕권(고전15:25-29)찬159장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왕권의 효력과 관련을 가집니다. 첫째, 원수를 발아래 두는 왕권(25)-창3:15의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일로 뱀과 하닌 자기 백성을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둘째,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27)-동시에 그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높이는 발판이 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게 되었습

니다. 타락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은 더 높은 차원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셋째, 만우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28)-그러나 그 왕권은 겸손으로 다스리는 주권입니다. 만우 안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스리는 왕권을 주장합니다.

금 날마다 죽는 사람(고전15:30-34)찬161장

바울은 부활의 불신앙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허탄한 자랑에서 나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타락의 원인인 육의 활동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첫째, 바울은 자기 부인을 자랑했습니다(30-31).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신이 본을 보여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권합니다(눅9:23).

둘째, 방종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32-33). 자아부인을 포기하게 하는 방종을 대적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도리어 그 노예가 되어 하늘의 소망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의를 행하고 죄와 싸우라고 강권합니다(34). 깨어서 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됩니다.

토 부활의 변증(고전15:35-38)찬162장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첫째, 자연법칙이 증거합니다(36). 한 알의 씨앗이 죽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부활을 부인할 수 없도록 자연계시를 통해 보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친히 살리십니다(38). 창조자는 구속자이시고 창조자의 능력은 부활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며 하나님께서 마치는 구원은 그의 능력으로만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십니다(38). 만물도 각각각색으로 형체와 영광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 후에도 그의 뜻대로 각각 형체와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등 상급을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생과 영벌도 그 분의 뜻대로 완성됩니다. 이미 부활생명을 가진 우리는 완성되는 그 날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일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공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오후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오후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장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아침예배: 오전 9: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csattle.org	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jcchurch.org	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한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is.com	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43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리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드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저녁예배: 오후 7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

-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문의: 623-326-5532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0)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사업에 있어서 6대 기본 법칙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떠올린다. 참으로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이다. 사업 환경에 있어서도 똑 같은 계명들이 명백하게 적용되지만, 특히 경영 분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최소한의 기본 법칙이 존재한다.

지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역 회의에 참가해본 결과 나는 강력한 지도자의 방침 아래 있는 대부분의 중역들은 모두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단지 소수의 이사들만이 사장이 방향을 제시한 후 그 방향이 본래적인 회사의 목표들과 완전히 상반될 경우에 사장의 지시에 저항한다.

현대 사업 환경에서는 공급자들이 자본을 이자 없이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자주 취급 된다. 사업이 담보 상태에 있을 경우 줄어든 현금 공급 흐름을 보충하기 위해 공급자들에게 대금 지불을 연기하는 것이 보통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쓴 길만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성경적 원칙들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잠언 3:27-28절을 보라. 지불 연기된 어음이 있는데 다른 자재와 물자들을 주문하기를 계속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규칙 1.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우리는 사기와 속임수 섞인 계약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많은 기회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규칙 3. 양질의 생산품을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라.

어느 회사가 공급하는 생산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아마 그 회사의 생활의 다른 어떤 면보다도 그 회사와 그 회사의 사람들의 참 모습에 대하여 많은 것을 대중에게 이야기해준다. 가치는 구매에

규칙 5. 종업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라.

공정함은 하나의 책임감이며 기회이다. 공정함은 보통 작업 환경에 있어서

정직과 공정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책임감 있어야 최선의 가격, 최상의 생산물 생산...채권자와 신의 유지

잠언 3:32절은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훈이 있음"이라고 하였다. 또한 잠언 4:24절은 "계책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였다. 두절 모두 다음과 똑 같은 기본 원칙을 암시한다.

정직함을 보장하고, 부정직함은 징계된다. 주제가 단지 흠치거나 흠치지 말라는 것이면 하나님의 백성 중 대다수가 섬기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조금 까다롭게 된다.

대한 올바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원가라고 꼭 낮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크리스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서비스와 생산품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 종류의 결과는 가능한 한 최선의 가격에 최상의 생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규칙 4. 채권자들과의 신의를 지켜라.

사업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상품을 제공해준 사람도 포함된다.

급료나 각종 혜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체를 보는 그림이 아니다. 공정함은 또한 태도와 상호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규칙 6. 고객들을 공정하게 대하라.

공정함은 고객에게도 적용되는데, 고객들은 당신이 좋은 생산품을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고 당신의 말을 지키기 때문에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dr.jameskoo@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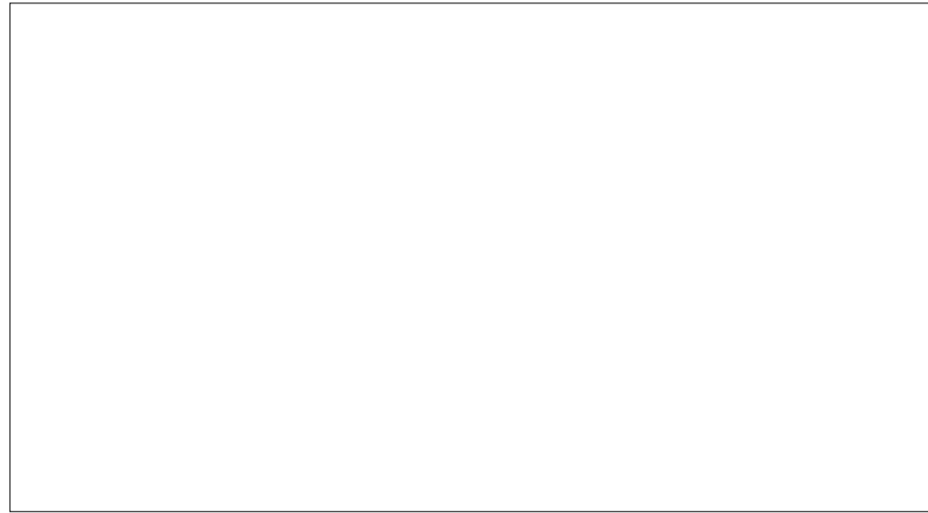
규칙 2. 책임을 져라.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책임일 것이다. 권위적인 사람들의 주위에는 항상 그들 결정에 이의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처음엔 자산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선 부채가 된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을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나 본 궤도를 이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업가들은 중역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거나 정기적인 참모회의를 가

본사방문

양종석 목사 (총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회장/가든그로브 대양교회 담임)



총신 친선 체육대회...격려와 위로의 시간 될 것

총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양종석 목사)는 제 3회 친선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일 회장 양종석 목사와 총무 하요한 목사가 본지를 방문해 오는 21일(월)에 개최될 친선체육대회 취지를 전하며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사당동에 소재한 총신을 졸업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민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에도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입을 여는 양종석 목사.

그는 "이 대회를 개최하며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으나 격정스러운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며, 목회를 겸임하느라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 염려된다"고 말한다. 한국 목회와 달리 이민 목회의 특성상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함으로써 더 힘들고 이런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다.

양종석 목사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나 오자마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그가 사역하고 있던 청원대양교회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하고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후, 6년 전 미국으로 들어와 늦깎이 개척교회 목사가 됐다. 한국에서 교회건축도 잘 마무리하고 은퇴한 그였지만 그 역시 이민교회 목회는 쉽지 않음을 절감한다고 한다.

양 목사는 "한국에서 사역은 목회자 중심적인 것이 많지요. 물론 섬김이란 것은 같지만, 미국의 사역은 더 섬겨 주어야 하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개척교회란 한국과는 달리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재미있는 사역이었다면 미국의 개척교회사역은 힘든 사역입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 죄송한 마음도 있지요. 이민사회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도 힘들지만 제게 주어진 일이니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진솔하게 들려준다.

양종석 목사가 미국에 발을 딛자마자 바

로 한국으로 돌아가 15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하기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헬렌 주 사모(쉐퍼드유치원 원장)는 어린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유치원 사역에 올인해 가든 그로브와 오렌지시티 두 곳에 유치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40여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유치원생 중 한국 어린이는 10% 밖에 안 되지만 양종석 목사는 어린이들에게 한글로 성경이야기도 해주고 영상도 틀어주어 외국 어린이들도 졸업을 할 때가 되면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는 수준이 된다고 말하며 "어린이 사역이 정말 재미있다"고 소개하며, 정말 어린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유치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액 케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케냐 두루카나 지역에 메모리얼채플을 건축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열다섯 교회에 매월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메모리얼 채플에 식수 목적이 아닌 농장을 하기 위한 우물과 태양열시스템을 갖춰 사막지역이 지금은 아주 푸르른 농장이 돼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늦깎이 개척교회 목사님, 어린 꼬마들과 더불어 신나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양종석 목사에게 올해 총신 남가주총동문회 회장직분이 맡겨졌다. 이 직분을 감당키 위한 비전을 묻자 "이민사회 속에서 동문들과 함께 어울려서 풀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상담해주는 푸근한 동문회로 만들고 싶다"고 소박하게 들려주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본 친선체육대회에 대한 문의는 (213)663-5080/(213)718-3079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